



# 변화와 협력을 통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내길 기대합니다!

김중식 목사 (포항중앙침례교회 담임/FMB 이사장)

● 2021년은 해외 선교회 안에 여러 변화가 일어난 해입니다.

우선 이사장과 회장이 모두 교체가 된 해이고, 또 WMTC의 정체성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해였습니다.

WMTC가 FMB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특이하게 신학대학 소속으로 학교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원장도 학교에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 물론 학교에서도 협조적으로 선교학 교수들을 번갈아가면서 임명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MTC는 해외 선교회와 학교의 사이에서 미묘한 정체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부터 학교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교단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자는 뜻에 같은 마음으로 합의를 하고, 양측 이사회의 결의 끝에 WMTC가 학교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여 FMB 산하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 이제 WMTC는 명실상부한 교단 해외 선교회 산하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FMB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 선교사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 교육을 개발하고 디자인해서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관으로 발전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외선교회가 점점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근에 SRDC도 위원들이 모여서 선교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 수집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슬람권 사역자들이 전략을 나누고 공유하는 '인투 네트워크(In2network)'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지난 10월에 열렸는데, 횡수가 더해지면서 자료가 쌓이고 선교사들 사이에서 서로의 경험이 공유되면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FMB의 미래를 그리는 '비전 2030' 역시 선임선교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해외 선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그림을 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12월 14일에는 FMB 선교사 은퇴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FMB 역사에 또 하나의 작은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해외 선교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제3회 FMB 선교포럼 - 함께 하는 선교



2021년 11월 22일, 제3회 FMB 선교포럼 <함께 하는 선교>가 시작되었다.



우리들의 모임은 늘 찬양으로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이 날도 어김없이 찬양이 시작되고 모인 무리의 떼창으로 이어진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소리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설레는 소리이다. 곧 포럼이 시작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 라는 생각이 기대감을

점점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찬양이 잦아들고, 이영은(아름다운교회담임)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와 박문수(직전총회장, 디딤돌교회로복사)목사님의 “마을의 선교전략” 말씀으로 제3회 FMB 선교포럼 “함께 하는 선교”가 시작되었다.



주민호 FMB회장

뒤를 이어 주민호 회장님의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발표를 통해 오늘의 해외선교회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에 밑알이었던 어제를 돌아보며 참석자 모두가 선배 목회자들의 협력과 희생, 성숙에 존경을, 한국으로 파송 선교사로 와서 한국인과 함께 사역하며 한국인들을 안내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의 협력 정신과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 포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주민호 회장의 “FMB 비전2030” 발표는 보는 사람들도 힘찬 열정에 빠져들 만큼 힘차고 신났으며 기대감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순간이었다.

## 이는 만큼 보이는 선교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선교

3회 포럼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적인 다양한 주제 강의로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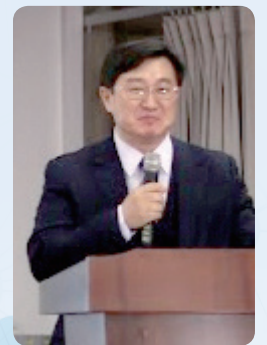
포럼을 준비하는 내내 목사님들께 정말 유익하고 선교를 도전하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이것은 적중하였다. 시종일관 모든 강의에 집중하며 자유 토론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현모 교수님의 명 강의 “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선교”는 과거의 팬데믹이 역사를 바꾼 일화를 통해 현재 팬데믹이 종식되면 인류의 역사는 또 한 번 커다란 변곡점을 지날 것이며 한국교회의 대응과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추구 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기회를 선용하고자 하는 도전으로 목사님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김중식 해외선교회 이사장님의 “파송교회의 책무와 역할 그리고 특권”은 포양중앙교회의 선교가 시작된 배경과 선교현황을 나누었고 특별히 파송교회의 책무와 역할은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에게는 비교, 보완이 되었고, 선교를 시작하려는 교회에게는 실제적인 사례를 통한 교회선교정책에 필요한 팁을 얻을 수 있었다. 파송교회의 특권과 축복의 나눔은 선교를 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을 품게 했다.

선교 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정책을 비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권효상 KPM 연구국장의 “KPM 선교사 파송 정책과 실제”발제였다. 교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교회가 선교사파송에 관여하고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는 정책과



권효상 연구국장



이를 위한 선교부의 세부적인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필기를 하는 모습에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이미 정책이 완성 된 듯하다.

### 선교사 멤버케어란 ??

사역자들이 그들의 단체와 교회에 의해 돌봄과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자신과 가족을 잘 돌보는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확신을 품을 수 있도록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선교사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과 사역과 일을 수행하도록 늘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능력을 부여하는 포괄적인 과업이다. (가드너)



안진섭 목사

섬세하고 자상함으로 알려져 있는 새누리2 교회의 멤버케어. 새누리2 교회 안진섭목사님의 “지역교회의 선교사 멤버 케어”를 들으며 가드너의 멤버케어가 떠올랐다. 특히 목사님의 안정적이고 변함없는 목소리 톤이 새누리2 교회의 안정된 멤버케어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듯하다. 실제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허기를 채워 선교사들을 회복시키는 새누리2 교회의 멤버케어를 통해 가드너의 멤버케어 정의가 떠올랐다.

선교사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과 사역과 일을 수행하도록 늘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능력을 부여하는...

물론 멤버케어의 핵심은 주님의 케어이다. 하지만 주님은 폭 넓은 멤버케어를 통해 상호간의 돌봄을 사용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성숙한 돌봄을 지향하신다고 생각한다.

지역교회의 선교사 멤버 케어의 자유 토론 후 새누리2 교회의 멤버케어가 완벽하여 기가 죽는다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한바탕 웃을 수 있었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송솔나무의 휘슬 특별공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빼앗은 송솔나무의 휘슬 특별공연!!!! 국내 유일한 휘슬 연주자!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지리산의 OST를 연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는 데 충분했다. 아름다운 휘슬소리는 다양한 장면이 펼쳐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차고 신났다. 연주는 완벽했고,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했으며 곡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코로나19로 공연에 굶주렸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 4차 혁명과 비대면의 시대! ONTACT SMART 전도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에 최적화 된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 소개, 원격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으로 전도 할 수 있는 실력과 콘텐츠를 구비로 상상 할 수 없었던 전도법을 이진호 글로벌 SQ 연구소 소장을 통해 소개되었다.

다소 생소하기도 했지만, 보편화 될 것을 미루어 볼 때 훌륭한 방법이자 활용을 위한 실천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 포럼 리뷰를 마치며...

지역교회 목사님 76명, 이사님13명(부부동반 포함), 스텝 9명 총 98명이 참석하였다. 호텔에서 서 안내 받은 코로나 제한 인원은 99명이었다. 찌리릿~~ 98!! 짜릿한 숫자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모두가 받은 값진 선물은 막연했던 선교가 “함께 하는 선교”를 통해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되었다는 것이다.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혼자 생각 해 본다. 함께 하는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다!!!!

마지막 순서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 FMB 비전2030과 함께하는 선교

주민호(FMB회장)

FMB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비전2010, 비전2020을 제시하며 왔는데 지금 2030년을 향해 나갈 비전을 함께 세워 가는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3회 선교포럼을 “함께하는 선교” 라는 주제로 열게 되었다. 이 포럼의 마지막 시간에서 FMB 회장으로서는 준비한 “FMB 비전2030”을 제시하였는데, 발제 때 사용한 PPT 자료와 함께 짧은 설명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침례교 해외선교회는 1988년 출범 때부터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님께로”라는 사역 슬로건을 걸고 사역을 해 왔었다. 이 표어는 요한계시록 7:9,10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민족,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나오는 큰 무리”를 만나게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침례교회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선교하도록 도우며 사역해 온 해외선교회의 변함없는 목표와 역할을 잘 드러내 준다.

세계선교는 지역교회, 현장 선교사, 그리고 본부로 구성된 세 축의 유기적인 관계와 협력을 통하여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교회는 주님의 선교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길러내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선교의 절대적 축이다. 현장 선교사는 지역교회라는 몸 가운



데 태어나서 자라고 훈련되는 가운데 소명과 인도하심을 확인받고 보냄을 받는다. 본부는 지역교회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선교사들을 선발, 훈련, 파송, 멤버케어, 위기관리 등의 지원을 감당하며 세계 열방 속에서 선교사 역할과 사역을 지휘, 조율한다. 세계선교는 어떤 한 개인, 한 교회가 아닌 전체 교회들의 참여와 현장 선교사, 그리고 본부의 함께 함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고 있다.

해외선교회(FMB) 사역의 2021년 현재 상황을 앞에서 설명한 3축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





면, 760명의 현장 선교사가 64개 나라에서 12개 지부를 구성하여 사역 중이며, 196개 민족 그룹을 섬기고 있다. 파송주체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150개이며, 재정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720 교회,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이 3,260명이 된다.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은 본부, WMTC(세계선교훈련원), SRDC(전략연구개발원)이 함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감당하고 있다.

FMB 비전2030은 현장 선교사들과 본부 회장, 총무 등 40여명의 선교사들이 3개월 동안 매주 줌(zoom)을 통한 만남을 가지면서 기초안을 작성하였고, 현재 각 지부별로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체 회원이 제안된 기초안을 가지고 매주 함께 검토 중에 있다. 그 전체 윤곽과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된 후 정리되어 이사회의 허락을 득하고 나서 발표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발제 내용은 3축 중에서 지역교회와 지방회, 그리고 본부와의 관계와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되었다.



그런데 세계선교와 관련한 FMB 비전2030을 준비하고 말해야 하는 우리들의 상황은 Covid-19가 진행 중이고, 미래학자들은 “10년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고 외치는 그 한복판에 해당한다. 미래학자들의 예측으로는 2030년이

되면 인구 출생률에 근거하여 또 신흥 공업국 차원에서 아프리카, 중국, 인도가 크게 부상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 침례교회외선교회의 인적자원 배치와 관련한 고민과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중국어로 사역하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비자발적 철수와 최근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사역지 변경을 시도하거나 요구받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 선교사는 FMB 전체 선교사 숫자 면에서 여전히 소수이다. 이런 미래학자의 예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노령화로 인해 실버세대가 대세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FMB 선교사 정년은 70세이다. 점차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IT 기술을 어떻게 선교사들에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II. 코비드 이후 예측 & FMB 비전2030

### 코비드 이후 예측

- 노인 연령층(실버 세대) 증가
- 출생 인구 & 신흥공업국 부상 : 아시아(인도, 중국), 아프리카
- 도시 인구 증가(Z세대, 세계화 세대) & 여성 부상
- 과학기술
- 공유(네트워크, 연결)
- 암호화폐

이런 예측들 속에서 우리 FMB는 2030년이 되면 어떤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것인가? FMB 차원에서 2030년까지 선교현장에서 기도하며 예측할 수치를 발표하였다. 선교지 2,000교회 개척하기, 선교사 500유닛 파송하기, 현지인 선교사 500유닛 파송하기를 먼저 제시되었다. 사역의 결과를 강요하지 않았던 특성상 34년째 사역하는

## II. 코비드 이후 예측 & FMB 비전2030

### FMB 비전2030

- 2000교회 개척
- 선교사 500 유닛 파송(인턴 300, 일반 100, 황금기100)
- 현지인 선교사 500유닛 파송
- 침례교회 50% 선교동참
- “FMB 파트너” 5천 동참
- “FMB 프렌즈” 1만 동참

### 함께하는 선교

지역교회  
지방회  
총회, 기관

FMB본부  
SUPPORTING  
사역자들  
총무들/팀장/팀원들  
WMTC, SRDC

FMB현장  
선교사  
현지 침례교/총회들  
국제 선교단체들

FMB 선교사들을 통해 몇 명의 현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는지, 몇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제자훈련을 받았으며, 지도자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 이제부터는 이런 것을 최소한 정리하여 자료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 및 후원 교회들과 관련하여 “침례교회 50% 선교동참”, “FMB 파트너 5000명 동참”, “FMB 프렌즈 1만 동참”이라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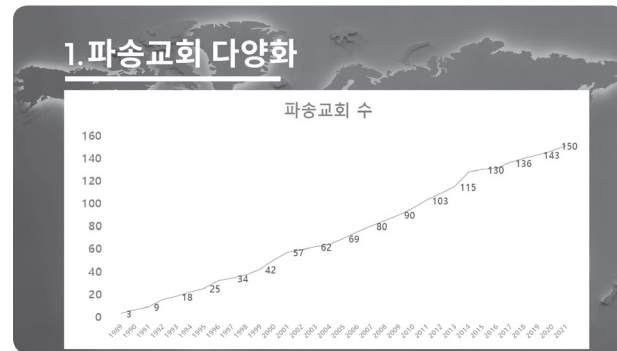


가 제시되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중요한 부분이 지역교회(지방회)라는 선교의 한 축이다. 인적 자원도, 재정 자원도, 그리고 기도 자원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 III. 지역교회 / 지방회 섬김 과제

1. 파송교회 다양화
2. 침례교회 선교참여 극대화
3. 선교훈련의 교회별/지방회별 활성화
4. 지방회와 선교사 또는 선교권역 매칭



어나서 2021년 현재 150개 교회가 된 것이다. 파송교회들의 파송선교사 숫자를 고려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온다.

### 1. 파송교회 다양화

구분	교회수	교회명
교회당 파송 선교사수 (FMB 소속)	4unit	강남비전, 강남중앙, 서울제일, 아름다운, 늘푸른
3unit	15	
2unit	12	
1unit	106	
합계	147	파송교회당 평균 1.95유닛 파송

FMB 본부 차원에서 지역교회와 지방회를 섬기는 계획으로 “선교사 파송교회 다양화”, “침례교회 선교참여 극대화”, “선교훈련의 교회별/지방회별 활성화”, 그리고 “지방회와 선교사 또는 선교권역 매칭화”의 4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파송교회 다양화와 관련하여 몇가지 수치 자료가 제시되었다. 1989년 선교사 파송교회가 3개 교회였는데, 그 숫자가 매년 완만하게 늘

파송교회별 파송선교사 숫자를 볼 때 20유닛을 파송한 교회가 1개, 16유닛을 파송한 교회가 1개이며, 1유닛을 파송한 교회는 106개이다. 150개의 파송교회는 3500개 전체 침례교회의 약 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720개 교회는 전체 침례교회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침례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위해 5교회에서 한 교회 꼴로 후원현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 결과는 다섯 교회 중 네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헌금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조사에 의해 나타난 또 한 결과는 파송교회가 있는 선교사는 287유닛, 없는 선교사가 113유닛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송교회의 생활사역비 지원금액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도표와 같은데(목적헌금 제외), 86 유닛의 선교사는 파송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파송교회라는 명칭은 있는데 전혀 헌금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지만 FMB 공식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 등 다른 창구로 헌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MB 선교사는 모두 본부에서 제공하는 공식계좌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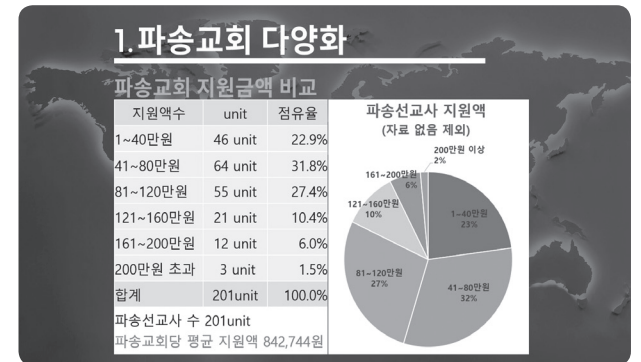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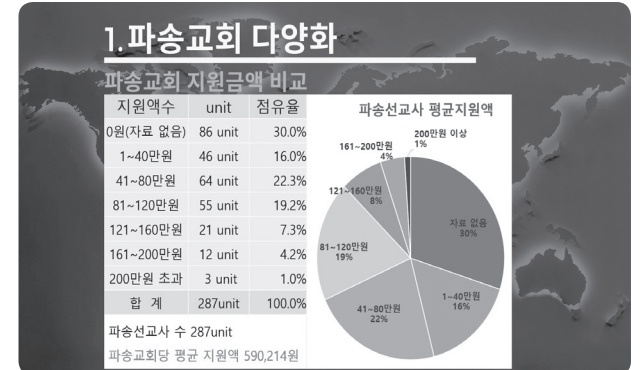
### 1. 파송교회 다양화

파송교회와 선교사수의 비교

교회	침례교회	파송교회	후원교회	비고
	약 3500개	150개	720개	파송교회는 FMB 소속 선교사 1명 (유닛) 이상을 파송한 교회
		약 4%	20%	후원교회는 FMB 소속 선교사 1명 (유닛) 이상을 후원하고 있는 교회

	FMB 파송선교사	파송교회 보유선교사	파송교회 없는선교사	비고
파송선교사	400unit	287 unit	113unit	
비율	100.0%	71.8%	28.3%	





까? 본부계좌로 현금을 보낸 현금이 없는 선교사들을 제외하고 다시 자료를 뽑은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 자료에 의하면 침례교회외선교회 선교사들은 파송교회로부터 평균 85만원 가량의 지원을 매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 파송교회 다양화

- 파송교회 세분화 제안

(1) 기독교성결교회 선교부 모델

- 1파송교회: 월 100만원 후원
- 2파송교회: 월 50만원 후원
- 3파송교회: 월 30만원 후원

파송전 모금 요청액: 250~350만원

이런 기초 자료에 근거하여 앞으로 파송선교사 후원금과 관련하여 기독교 성결교회 선교부의 모델과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선교부(GMS)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성결교 선교부의 모델만 보여 주기로 한다. 성결교회 선교

부에서는 파송교회를 제1파송교회, 제2파송교회, 제3파송교회로 분류하는데 제1파송교회는 월 100만원, 제2파송교회는 50만원, 제3파송교회는 30만원을 후원한다는 것이다. 우리 침례교회들도 제1파송, 제2파송, 제3파송교회라는 명칭과 역할을 주던지, 아니면 “주파송교회”, “협력파송교회”라는 명칭과 제도를 도입하든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성결교 선교부는 파송전 기본 모금 요청액이 250~350만원이고, 고신 선교부 선교사는 380만원, 합동 선교사도 380만원이다. 우리 침례교 선교사는 150만원 모금을 요청하는데 지금까지는 파송전에 이 금액을 다 모금하고 파송받아 나간 선교사보다 나간 후에 채워지는 선교사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주님의 도우심이 협력파송교회 내지는 제2, 제3파송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파송교회 세분화와 더불어 제안된 파송교회 역할 증대 방안 4가지가 제안되었다. 먼저는

### 1. 파송교회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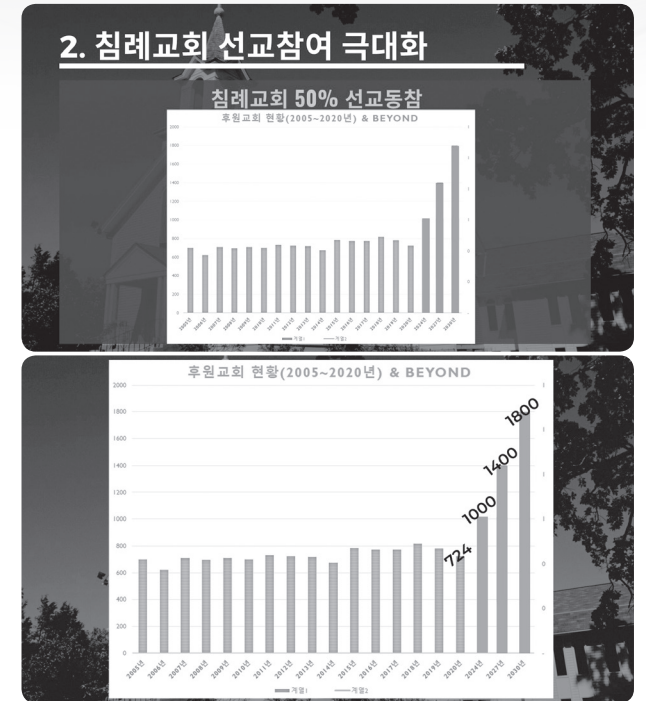
- 파송교회 역할 증대 제안

- 1) 파송교회 - 본부 - 현장선교사 긴밀한 의사 소통
- 2) 훈련, 모금 마친 선교사 공동 파송예배
- 3) 선교사 한국 입국시 파송교회 허락서 첨부
- 4) "파송교회 협의회" 신설

파송교회-본부-현장선교사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제안되었고, 두 번째로 훈련과 모금을 마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개교회별로 파송할 수도 있지만 공동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하자는 제안, 더불어 선교사 한국 입국시 파송교회

허락서 첨부를 요청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파송교회 목회자 협의회” 신설이 그것이다.

이어서 침례교회 선교참여 극대화 방안이 두 번째로 제안되었는데, 그 기초자료로 제시된 것이 침례교 선교사들을 위해 현금으로 동참하는 교회들의 숫자가 평균 700인데 (2005~2020년), 가장 작았을 때가 622교회(2006년), 가장 많았을 때가 817교회(2019년)이었다. 이 선교현금 참여교회 숫자가 2024년까지 1,000교회, 2027년까지 1400교회, 2030년까지 1800교회로 늘어나도록 해 보자는 것이다. 720 후원교회들 중에서 1명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347교회, 2유닛을 후원하는 교회가 152교회이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는 90유닛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후원액수와 불문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숫자만을 본 것이다. 이미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서 함께 후원하자고 제안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할 일이라고 여겨진다.



우리와 친숙한 미국 남침례교단의 국제선교부(IMB)의 경우가 예로 제시되면서 협동선교가 가능하다는 도전이 있었다. IMB 예산의 70%는 라티문 성탄현금을 통해서 채워지는데 2021년 가을에 현금된 액수가 1억7천700만\$인데, 이 액수는 전체 45,000남침례교 소속 교회들의 53%가 참여한 것이라고 하였다.





**비교:**

**IMB 라티문 성탄헌금: 1억7천700만\$(2020년)**

- 1) 전체 IMB 예산의 70%
- 2) 전체 SBC교회들 참여율: 53% 교회 참여(45,000교회의)
- 3) 2022년에는 75% 교회가 참여하는 것 목표로 동원중!

(참조 : 2021년, 11월 11일, IMB 총재 PAUL CHITWOOD 강의 중에서)

**비교:**

**SBC의 C.P 헌금 중 IMB 배당분:1억\$(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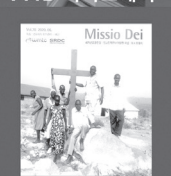
- 1) 전체 IMB 예산의 30%
- 2) 전체 C.P.헌금의 50.4%가 IMB로!

(참조 : 2021년, 11월 11일, IMB 총재 PAUL CHITWOOD 강의 중에서)


**2. 침례교회 선교참여 극대화**

홍보를 통한 교회와의 소통 강화

FMB 미사오데이



FMB 홈 페이지



**2. 침례교회 선교참여 극대화**

"열방을 위한 기도회" 확산을 통한 동역자 의식/가족의식 강화



2025년까지 교회들의 현금 참여율을 75%까지 올리려고 기도하며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총회에서도 작년부 터 시작한 C.P(협동선교)헌금의 경우 전체가 모금되면 SBC내 각 기관에 배당이 되는데 IMB에 할당되는 비율이 전체 CP헌금의 50.4%이며, 그 액 수는 1억\$라고 한다. 우리 한국침례교회들도 세계선교를 위해서 이런 협력이 가능하다고 믿고 기도 한다.

이런 협력이 가능하도록 침례 교해외선교회에서는 “홍보를 통한 교회들과의 의사소통 강화”, 그리고 “열방기도회”를 열어주기를 부탁하였다. 한때 여러 도시에서 매월 한번 씩 열리던 열방기도회가 지금은 세종선한목자교회와 공주 지역 2곳에서만 열리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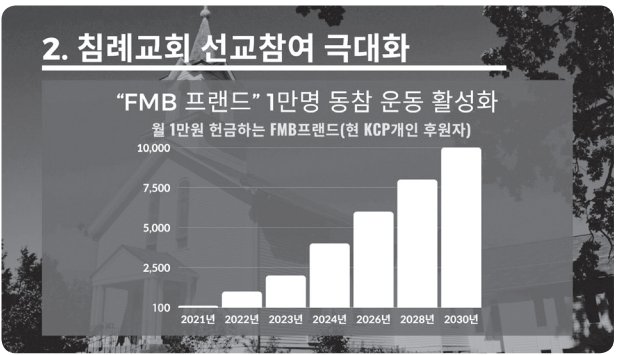
선교의식 고취를 위해서 “개 교회 맞춤형 선교축제”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토요일과 주일 2일 프로그램으로 교회 전체가 세계선교의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하고

말씀을 듣고 활동을 하는 축제를 준비하여 함께 하자는 것이다. 지역교회들과 해외선교회 본부, 국내에 와 있는 현장 선교사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일이 기대된다. 또한 “FMB 프렌즈” 1만명 동참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설명되었다. 현재 KCP헌금으로 월 1만원 헌금해 주는 사람이 100명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2030년까지 1만월 헌금하는 친구 1만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담임목사님들의 동의와 허락하에 FMB 1만 프렌즈 동참 운동이 활성화 될 것이 기대된다.

세 번째로 선교훈련의 교회별/지방회별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맞춤형 훈련을 FMB가 제공하는 것인데, WMTCC가 기존에 제공하던 인투미션이 다양화되고 있음이 설명되었다. 대면훈련에 더하여 비대면 훈련이 준비, 진행되면서 효과가 입증되었고, 특히 선교위원을 위한 인투미션이 큰 효과와 도움이 되었음이 강조되면서 년초에 임명된 선

**2. 침례교회 선교참여 극대화**

개교회 맞춤형 선교축제를 통한 선교의식 고취

- 3. 선교훈련의 교회별/지방회별 활성화**
- 1) 인투미션 통한 선교훈련
  - 2) 비전트립 통한 선교훈련



#### 4. 지방회와 선교사 또는 선교권역 매칭

- 1) 개교회(담임목사님) 방문을 통한 나눔과 교제
- 2) 지방회 별 "FMB 비전 2030" 설명회
- 3) VIP교회 목회자 초청 1박2일 "FMB 선교포럼"
- 4) "지방회 후원 선교사" 매칭
- 5) 지방회와 선교사 권역 선교파트너 매칭

남과 교제를 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지방회 별로 FMB 비전2030 설명회나, VIP 교회 목회자 초청 1박2일 선교포럼, 지방회 후원 연결 또는 선교사 파송 매칭, 지방회와 선교 권역과의 선교파트너 매칭이 제안되고 설명되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침례교회의 현주소와 또한 교회들이 믿고 파송한 선교사들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 와 닿은 것은 선교는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헌금하며 도움을 준 많은 교회들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선교는 여기 까지 진행 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와 헌금과 섬김의 열매이기에 감사할 뿐이다. 교회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최선을 다해 선교사역을 위해 헌금하고 힘에 지나도록 섬겨주신 목사님들과 교인들에게 진심 감사를 전한다.

교위원들을 이 과정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방회와 선교사 또는 선교권역 매칭 방안이 제안되었다. 본부 회장, 총무 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교회 담임목사들을 방문하여 나





# FMB 무슬림 사역 전략회의, 인투네트워크(In2Network)



윤바울(총무)



황권상(서기)

## I. 인투네트워크(In2Network) 소개

### 1. 인투네트워크란?

인투네트워크(In2Network)는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의 무슬림 대상 사역자들이 자발적으로 무슬림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격년)으로 모이는 전략회의이다.

인투네트워크 전략회의의 목적은 ① 무슬림 사역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화하며, ② 무슬림 사역의 역량과 선교 리더십을 육성하고, ③ 무슬림 사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멘토링과 사역적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 전략회의는 무슬림 사역과 관련한 중요한 주제에 맞추어 포럼, 세미나, 강의 및 발제,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배우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전략회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무슬림 사역의 경험과 정보가 공유되고, 차세대 무슬림 사역 전문가들이 계속 발굴되며, 효과적인 이슬람 선교 전략들이 개발되고 적용, 확산되고 전수되는 것이다.

## 2. 인투네트워크의 역사

2010년 4월, 하영광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제안에 따라 동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터키, 중동 및 유럽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FMB 소속 20여명의 사역자들이 독일 라이프찌히(권순태 선교사)에 모여 특별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무슬림 사역의 전문가 계발을 위한 모임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In2Network'란 명칭의 전략회의를 해외 선교회 본부(FMB) 동의하에 결성하였다. 그 이후로 2년에 한 차례씩 선교지역을 옮겨 다니며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었다.

	일정	장소	대 회 주 제
1차	2010년 4월	독일 라이프찌히	FMB 특별 선교정책(무슬림 사역) 세미나
2차	2011년 11월	터키 에베소	이슬람에 관한 이해와 터키 지역의 무슬림 사역
3차	2014년 6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무슬림 사역의 돌파구를 찾아서'
4차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전도 방법론
5차	2018년 11월	남아공 케이프타운	무슬림 선교와 리더십 계발
6차	2021년 10월	한국 대전(WMTC)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슬람 선교전략

처음 두 번의 모임에는 보안을 고려하여 자료집을 인쇄하지 않았지만, 3차 전략회의부터 강의안과 발제문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여 참가자는 물론, 국내의 지역교회와 교단, 선교단체와 무슬림 사역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초기에는 참가자를 무슬림 사역 경험 5년 이







상의 장기 사역자로 제한하였으나, 전략회의가 각 지역을 옮겨가며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의 구성과 참여의 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제는 인투네트워크 전략회의가 힌두권, 불교권 등 사역별, 영역별로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모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타 교단 및 단체의 무슬림 사역자들에게도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그동안 대표코디로 하영광 선교사(1차, 2차, 6차대회)와 주민호 선교사(3차, 4차, 5차 대회)가 역임하였고, 이번 6차 대회에서 신임 대표코디로 문승호 선교사(터키)가 선임되었다.

### 3. 제6차 대전 전략회의의 특징

전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슬람 선교 환경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방향과 모양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6차 전략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시대 변화를 예측하면서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전략회의는 팬데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On-Line)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네트워크(Network)할 수 있는 대면 대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동안 전략회의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선교사들도 현장에서 줌(Zoom)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온라인 진행은 전략연구개발원(SRDC)의 장비 제공과 IT 스태프들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한편 이번 전략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고, 더욱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세계선교훈련원(WMTC)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무슬림 사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무슬림 사역에 동원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에 따라 주제 강의와 발제를 통해 한국의 이슬람 현황, 한국교회의 대응 전략, 김해 지역의 무슬림 교회개척 사례 등 세 차례에 걸쳐 다루었다. 하지만 팬데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마지막까지 관건이 되었고, 그로 인한 참가 및 홍보 제약과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의 기대를 달성하는데 미흡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II. 대전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

### 1. 주제 강의

#### 1) 4차 산업혁명과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 고승희 목사(LA아름다운교회)

- (1) 시대를 알거나 예측할 수 있으면 다가오는 때를 준비할 수 있다(대상 12:32).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의 방식이 시작될 것이다. 역사상 팬데믹이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는 없었다.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 (2)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는다. 플랫폼에 올리는 설교는 11분을 넘지 않고, 성경 공부는 7분 단위로 올려야 한다. 한 개를 길게 만드는 것보다 짧은 것을 다양하게 주어야 한다.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3) 디지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고립되게 된다.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람들과의 더 많은 접촉점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포스트 팬데믹과 이슬람권 선교의 새 패러다임 : 엄주연 박사(GMTC 교수)

- (1) 전통적 대면 사역의 방향. 첫째,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그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들이 우울감, 무능감, 상실감, 신경과민, 염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교사가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원해야 한다. 둘째,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 (2) 모든 것의 통합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지역성과 세계성의 통합과 실제와 가상의 통합이다.
- (3) 깊은 접촉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한다(Toward deeptact paradigm).
- (4) 전략 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야 한다. 첫째, ① 메타버스, 실감 미디어 서비스 개발, 아바타를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소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21세기의 변화하는 이슬람권 선교 환경에 부합하는 사역 철학과 종교 신학 확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② 선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선교사들을 지역, 종교, 문화, 위생, 상담, 기술, 전략, 디지털 환경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③ 인투네트워크가 왕국 정신에 기초한 왕국 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략 자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3) **포스트 코로나 이슬람 선교 전략 : 이용규 박사(인도네시아)**

- (1) 선교 현장에서 요구 되는 변화. 첫째, 작은 단위의 소그룹 양육과 소그룹을 묶는 네트워크 사역이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대형 집회나 대규모 동원보다는 작은 단위의 양육이 중요해지고 대규모 동원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교회와 단체의 융합과 협업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넷째, 공동체 사역에 대한 도전과 요구가 커질 것이다. 앞으로 선교의 포커스는 협력과 연합을 위한 토대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 (2)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사역 포커스의 변화. ① 온라인 예배, ② 온라인 전도, ③ 방송 사역, ④ 온라인 논쟁 사역, ⑤ 난민 사역, ⑥ 현지 교회와의 동역이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권에 거주하는 기독교 마을과 교회들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사역도 중요한 사역 영역이다.

4) **이슬람의 한국 포교 활동과 이들을 향한 접근 전략 : 최원진 교수(침신대)**

- (1) 한국내 무슬림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스크 18개와 무살라(기도처)가 124개 있다. 교회마다 이들을 향한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역 전략이 없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 (2) 한국 교회의 선교적 접근을 위한 필요는 첫째, 국내 무슬림 현황과 필요와 특성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무슬림의 공동체 중심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모스크나 무살라를 통한 이슬람의 포교에 대한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체류 무슬림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여성 사역자 개발이 필요하다.

- (3) 국내 무슬림 선교를 위한 전략적 제안으로, ① 지속적인 관심과 무슬림 대상 현장 사역자들의 사역적인 연계성을 논의해야 한다. ② 현지인 신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③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슬람 선교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④ 이슬람 사역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⑤ 전략적 연구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사역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⑥ 교회 건물이 아닌 제 3의 장소(가정, 직장, 카페 공간, 가상공간 등)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해야 한다.

5) **IT 기술을 통한 이슬람 선교 전략 : 김바울 선교사(인도)**

- (1) IT 기술을 통한 선교의 장점: 언제든지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다. 온라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배, 교육과 훈련이 무한대로 넓어졌다. 그리스도인은 문화의 변혁자로서 그 문화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 (2) 의사소통의 방법이 바뀌고 있다. 영상을 통한 의사소통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들게 되는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스토리 리딩이 되어야 한다.
- (3)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에게 팬데믹 기간은 도약의 기회가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가진 사역자들도 사역을 확장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 (4) 누군가는 변화를 주도하고, 누군가는 간신히 적용하고, 누군가는 변화를 외면한다. 예수님처럼 변화를 주도해 가는 탁월한 변혁자가 되어야 한다.

2. **예배 말씀**

1) **성령의 인도는 사실인가?(요 16:13) : 김중식 FMB이사장(포항중앙침례교회)**

- (1)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각자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평탄하고 순직한 인도를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우리의 그림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인도하셨다.
- (2)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첫째,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연단하시기 위함이다. 환난의 시간 없이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의 깊은 뜻은 다 헤아릴 수 없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2) 전도자의 삶(막 4:3-8) : 안진섭 목사(새누리2교회)

- (1) 전도자의 자격.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다.
- (2) 전도자의 신학(막 4:26-29). 첫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둘째,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마 9:35-38).
- (3) 전도자의 자세(막 4:3-7). ① 좋은 땅에 씨를 뿌리기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곳에 떨어지기도 함을 알아야 한다. ②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③ 제자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작은 겨자씨와 같았음을 알아야 한다(막 4:30-32). 작은 씨를 보고도 큰 나무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 3) 대소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다(학 2:1-9) : 김병철 목사(온양침례교회)

- (1) 성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면 초막과 같은 곳이라도 궁전과 같은 곳이다.
- (2)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작지만 생명력이 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패배의식과 싸워주신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 4) 3종의 삶(시 34:1-22) : 조대식 목사(신태인침례교회)

- (1) 증거하는 삶. 첫째,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으로 증거하라. 둘째, 구원의 실재를 증거하라(롬 11:6). 셋째,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시 34:9-10).
- (2) 증명하는 삶. 하나님의 열매가 없이는 자신을 증명하기 어렵다. 사역의 열매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 (3) 증참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눅 4:43). 삶 전체가 선교적인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 5) 내가 땅을 고칠지라(대하 7:12-14) : 이금주 원장(SRDC)

- (1)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둘째, 겸손해야 한다. 셋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넷째,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한다.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 (2) 하나님의 반응 :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거하는 땅을 고치신다. 하나님이 먼저 죄를 사하신다. 죄 사함 후에 따라오는 것은 회복(healing)이다.
- (3) 선교지의 부흥 전략. 첫째, 지도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둘째,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평양 대부흥은 두 여성 선교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늘 주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 6) 회복과 파송의 갈릴리로 오라(요 21:15-22) :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 (1) 갈릴리에서 베드로의 주님과 첫 번째 만남은 구원의 초청이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순간 깊은 실망 가운데 옛 생활로 돌아갔다.
- (2)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몇 가지를 회복하셨다.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하셨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일꾼들이 많다. 상처는 그대로 놔두면 가시와 같이 된다. 치유되면 사명이 된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도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다. 이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이다. Nobody에서 Somebody라고 느끼는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였다. 내 이름 뒤에 붙어있는 모든 감투가 없어져야 한다. 주님은 십자가의 회복도 원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한다.

#### 7) 부르심의 목적(벧전 1:15-16) : 박창환 목사(꿈꾸는교회)

- (1)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이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닮은 자이다. 아버지의 영광은 자신을 닮은 자녀이다.
- (2) 거룩함의 동기. 십자가를 만나면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함부로 살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
- (3) 거룩의 의미는 경건함, 순수함, 신성함이다. 주님이 너무 크시고 영광스럽고 위엄 있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 (4) 거룩은 사랑이다.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면 된다. 예수님



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막 10:45).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은 피곤하지만 주인의 필요를 먼저 채운다.

#### 8) 전략적 선교(마 10:16) : 하영광 대표코디(인도네시아)

- (1) '선교 전략'과 '전략 선교'의 차이점. 선교 전략은 일반형이고 보편적인 접근이고 그의 방법을 나타낸다. 전략 선교는 맞춤형이고 구체적 접근이고 나의 방법을 나타낸다. 전략 선교로 바꾸어야 한다.
- (2) 전략적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목표는 접근 방법이 아니라 결과이어야 한다. 둘째, 대결 방법 혹은 전술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어야 한다. 즉,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사역이어야 한다. 셋째, 합당한 자를 찾아야 한다. 무슬림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선한 감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 친구가 안 되는 사람은 적도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넷째, 상을 기대하며 절제하며 사역해야 한다. 다섯째, 여호수아(32전 31승)와 같이 승리해야 한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섯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 3. 발제 내용

#### 1)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무슬림 선교의 대안으로의 가정교회 사역 : 주스데반(카자흐스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교회 사역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과 제자삼는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가정교회들이다.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12명이, 매주 한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을 다하는 공동체'로 정의된다.

가정교회가 팬데믹 상황의 대안으로 적합한 이유는 ①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평신도가 지도력을 발휘하며 가정집에서 모여 밥을 먹고 예배하며 삶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 가정교회였다. ② 성경적인 교회는 시대와 문화와 위기를 초월할 수 있다. ③ 가정교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지·정·의 욕구를 균형 있게 공급해 줄 수 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해 정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고, 삶 공부를 통해 영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④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정교회를 채택한 살렘교회는 2020년 한해동안 28명의 영접자, 25명의 침례자, 11명의 새로운 목자가 있었다.

#### 2) 이슬람 지역에서의 청년 공동체(이스탄불 사역지 중심으로) : 황보아스(터키)

이슬람은 공동체성이 강하며, 이러한 이슬람 공동체를 '움마'라고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청년 공동체가 터키의 민족적 움마 공동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스탄불 청년 공동체(로렘 공동체)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공동체를 따른다. 이슬람 종교의 영과 가족간의 억눌림, 폭력 등의 문제에 갇혀 지내던 청소년, 청년들이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로렘나무 그들과 같은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게 된다. 로렘 공동체는 터키 청소년과 한국 청년들이 맘껏 교제하고 놀 수 있는 터전이 되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 매일 아침의 말씀 묵상, 시간 관리 및 자기 관리와 영성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장기 선교사와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평적 동역자 관계의 청년 공동체는 급변하는 이슬람 선교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다.

#### 3) 동역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중동 Y국 내의 난민 교회 사역) : 아부 가람(중동 Y국)

Y국 내의 수단 난민 모임으로 출발한 교회에 세 명의 다른 국적의 선교사가 교회 사역에 동참하면서 국제적인 팀사역이 시작되었다. 이 수단교회가 역동적인 찬양과 이중 언어(영어, 아랍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이 나면서 언어를 공부하는 많은 사역자들과 난민들이 몰려오게 되었다. 교회 사역도 예배팀, 설교팀, 교육팀, 난민 방문팀으로 구성하여 체계를 갖추고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수단 난민, 예멘 난민 등을 섬기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교회의 규모는 약 30여 국가의 300여명이 예배할 만큼 성장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난민 방문팀 사역을 더욱 활성화되어 난민 방문팀이 50여명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대상이 300 가족 이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종, 국적, 언어, 문화를 초월한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중동 Y국의 난민 교회에서 실현되고 있다.

#### 4) 비즈니스를 통해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기(S섬 M종족의 사례) : 진아브라함(동남아 1국)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는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로잔 선언문에서 "비즈니스는 곧 선교이며, 부르심이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안에서 사역이다"라고 정의한다. 사역 초기에 발제자는 무슬림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비자를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비즈니스를 이용(Business For Mission)하는 형태였지, 비즈니스를 어떻게 무슬림 선교와 연결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지식이나 계획이 없었다. 현지에 여행사를 설립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정보나 경험 부족으로 실제적인 활동 없이 결국 중단하게 되었다.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한국계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S섬의 주산물인 커피 관련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생두 구매를 위해 현지 농장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지역 카페들에 가공한 원두의 판매망을 확보하며, 앞으로 인근 도시마다 카페 분점을 열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고 커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 나갈 계획이다. 무슬림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무슬림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5) 한국 내의 무슬림들의 증가와 한국 교회의 대응 : 오요셉(키르기스스탄)

2019년 기준 국내 거주 무슬림은 약 2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수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슬람 공포증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무슬림 인구는 전체의 0.5%에 불과한데, 그 영향력은 이슬람 금융 도입, 출판 분야, 대입 아랍어 교육, 캠퍼스 포교, 할랄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슬람의 신앙은 엄격한 유일신관으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슬림을 향한 변증은 7세기 중반의 다마스쿠스 요한을 비롯하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무슬림 집단 거주 지역을 파악하고 기도하며, 복음의 일꾼들을 훈련하여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평안의 사람을 찾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해야 한다.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고, 무슬림 개종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6) 사헬지역 서부 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들의 선교적 도전과 선교전략 제안 : 이화섭(세네갈)

사헬지역은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세네갈부터 동쪽 수단까지 길게 뻗은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대체로 무슬림 비율이 월등히 높고, 대체로 신비주의 요소가 강한 토착화된 수피 이슬람 공동체이다. 소수의 카톨릭 교인이 있으나,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노예무역으로 인해 기독교는 지배세력의 종교로서 역사적 민족적 반감이 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존재하는 지역교회들과 협력하여 기독교 학교, 사설 도서관 운영, 어린이 캠프 등을 통해 선교하는 방안이 있고, 주변 국가에서 이주해 온 디아스포라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도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이다. 아울러 선교지향적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선교 동력화하여 현장의 선교사 지원, 지역교회 지원, 무슬림 개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협력을 할 수 있다.

7) 국내 우즈베크 무슬림 교회 개척 사역(김해 우즈베크 케어센터를 중심으로) : 정요셉(한국)

김해에는 52개국에서 온 약 3만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고, 무슬림은 약 6천명이다. 그 가운데 우즈베크인의 수는 2,345명이다. 발제자는 1998년부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크인 중심의 교회개척 사역을 하였고, 2018년 안식년을 계기로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부산의 한 교회를 만나 김해 지역에 우즈베크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국내 이주민들의 필요는 직장문제, 의료 도움, 분쟁 해결, 비자 문제 등이다. ‘우즈베크 케어센터’를 열어 나그네로 온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 노래교실, 스포츠와 놀이, 생일 파티, 관광, 음식 등 다양한 선교적 활동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그리스도이 사랑과 복음이 스며들게 하고 있다. 무슬림 공동체의 방해와 위협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환대와 사랑, 선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8) 무슬림 난민 사역의 실제와 팬데믹 이후의 전망 : 윤바울(독일)

이주 현상은 인류의 시초부터 있어 왔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흠으심과 연관되어 있다. 2011년 ‘아랍의 봄’이라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대량의 무슬림 난민이 발생하였고, 구호사역과 함께 직접적인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중동 요르단에서 정착 초기에는 이라크난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 이후에는 시리아난민들을 대상으로 구제 활동과 함께 복음 전도사역을 진행하였다. 대량의 구호활동보다는 일대일 가정 방문을 통해 구호품과 함께 성경을 나누어 주고, 예수 영화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난민들의 정착국인 독일에서는 난민 캠프 방문, 광장이나 공원에서 일대일 접촉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전도 큐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며, 난민 교회를 개척하여 무슬림 배경의 형제들과 함께 독일 교회를 빌려 예배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활동들이 제한되었을 때에도 일대일 전도와 방문 사역은 제한을 받지 않았고, 복음 전도야말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활동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과 온라인 시대를 앞당겼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역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





## “침례교 해외선교회 선교사들의 사역 대상 선정과 사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현. FMB 동남아시아 선교사, 전. FMB 총무  
강순관 목사



침례교 해외선교회(이하 FMB) 회장님으로부터 ‘FMB 선교사들의 사역 종족 현황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글을 써 볼 것을 제안받은 후, 글의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동안 FMB와 함께 했던 순간들은 모두 소중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축복의 시간들이었기에, 이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필자의 경험과 더불어 FMB의 사역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본 글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제안받은 글의 주제는 ‘FMB 선교사들의 사역 종족 현황에 대한 리포트’였고, 이에 대한 자료로 ‘FMB 선교사들의 사역 종족 현황’이라는 52쪽 분량의 PPT 형식의 파일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는 2021년 기준으로 19개의 지부 190개 종족에서 사역하고 있는 760명의 FMB 선교사의 명단과 어느 종족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사역 대상에 대한 기록이 전부였고, 선교사가 사역지에 언제 들어갔는지,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역 결과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필자가 FMB의 실무자로 사역하면서, 본부 사역자로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관리했던 경험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FMB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내

용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장의 제목을 “과거 고찰; FMB 형성 초기 10년의 FMB 사역 대상 종족 선정 원칙과 사역 돌아보기”, “현재 고찰; 선교지에 파송되어 현장에서 경험한 사역 대상 종족 사역에 대한 FMB 사역 생각해 보기”, “미래 전망; VISION 2030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전망해 보면서 앞으로 10년 어떻게 파송해야 할 것인가?”로 정하고, FMB의 과거 및 현재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I. 과거 : “FMB 형성 초기 10년의 FMB 사역 대상 종족 선정 원칙과 사역 돌아보기”

필자는 12명의 선교사가 파송된 시점, 즉 FMB 초창기부터 약 10년 동안 총무로 사역했고, 필자가 사역하는 동안 37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당시 필자는 총무로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했고, 당시 회장이었던 유병기 목사는 이사와 함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지며, 대외적인 영향력으로부터 FMB를 보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등 지도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선교사 파송과 사역지 선정에 관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 초기 10년 사역지 결정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sup>1)</sup>

##### 1. 가족처럼 한 몸으로 사역하기

본부 사역 초기, 필자는 부족한 사역 경험과 선교적 지식으로 인해 당시 훈련을 받고 파송을 준비 중이었던 다섯 가정의 선교사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족처럼 사역을 시작하였다. 감사하게도 이들은 선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동역해 주었다. 필자는 이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각 지방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선교에 관련된 홍보 및 동원 선교집회 등을 진행하였고, 더 나아가 선교에 대한 교단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후 이들 중 네 가정이 선교지가 결정되어 파송을 받게 되었을 때, 한 가정은 본국에 남아 선교지로 떠나는 네 가정의 행정적/실질적 필요를 돕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선교사들의 사역지 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처럼

1) 유병기 「침례교 선교의 발자취:1988-2005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선교회의 시작과 선교역사」(서울: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2014),pp.32-49 '침례교 해외선교회의 창립 정신과 정책'의 내용 중에서 필자가 경험한 선교사의 사역대상 선정에 관계된 내용을 첨가해 설명했다.



림 작용하게 되었다.

선교지에 파송되어 나가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이 받은 선교적 비전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먼저 본부에 제안하게 되는데, 이때 FMB 본부는 선교사들에게 사역 현장의 필요나 상황을 알리고, 이러한 현장의 상황들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기회로 적용하게 될지 언급해 주었다. FMB와 소속 선교사들은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사역지를 결정하였다.<sup>2)</sup>

## 2. 작은 역량, 분산시키기보다 전략적인 지역에 우선 집중하기

본부 사역에 있어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의 선교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파송을 준비 중인 선교사들 중에는 선교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선교사들도 있었고, 한두번의 선교 여행으로 선교지를 결정한 선교사들도 있었다. 때로는 자신이 영향을 받은 선배 선교사의 말만 믿고 선교지를 정해놓고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었던 선교사도 있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에게 본부의 시각에서 보는 선교 현장의 필요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본부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전체 선교지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고 우리의 역량을 고려하여 선교사들을 전략적으로 파송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가지 원칙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우리의 역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FMB는 짧은 역사로 인해 사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적인 사례가 부족해서, 자칫하면 한정된 자원을 분산시켜 선교의 동력마저 잃어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분산시켜 힘을 빼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자원을 집중시켜서 좋은 결과(또는 성공 사례)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FMB는 중앙아시아를 타깃으로 정하고, 그곳에 선교적 자원을 집중하기 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팀 사역’이었다.

2) 이러한 분위기는 초창기 선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로 이어졌다. 특별히 선교사로서 훈련은 받았지만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행정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선교사의 신분으로 후원을 받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이때, 그 당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행정비 3% 외에 ‘본부 선교사 지원비’라는 항목으로 7-10%를 추가로 떼어 지원하도록 결정해 주었다. 이러한 동료들의 사랑과 헌신, 희생의 마음을 받은 필자는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따로 모아서 저축을 하였고, 그렇게 마련된 비용을 안식년 선교사를 위한 주택(광명시 하안동) 구입비로 사용하였다.

## 3. 팀 사역<sup>3)</sup>

팀 사역의 핵심은 ‘전문성과 연합’이다. 한 팀이 원활하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각자가 사역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기능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팀원들과 조화를 이루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동역함으로서 주어진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부는 선교사들에게 훈련을 강조했고, 훈련과 상담, 개인적인 만남 등을 통해 선교사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특징과 현지에서 사역 중인 선임 선교사의 특징을 비교하여 적합성을 따져본 후,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선교지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선교지가 연결되면 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현지 사역팀과 연결하고 지원하였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교사들이 되도록 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파송 이후 사역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관계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기회가 될 때마다(단기 사역, 지부 모임 등) 선교사들을 면담하여 좋은 동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내하였다.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하려고 노력했고, 중재자의 입장에서 팀사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 합당한 선교사들을 즉시 배치하여 사역에 공백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본부의 지원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팀이 만들어졌고, 팀 사역에 있어서 좋은 모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각 팀에 맞게 본국의 자원들을 지원함으로써 본부 역시 현지 사역자들과 팀으로 사역했다. 본부는 선교지의 각 팀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교적 자원을 동원하고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예를 들면, 각 지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발굴한 자원들을 단기 선교팀으로 보내고, 단기 선교팀의 사역기간이 끝났을 때 사역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교회 청년들을 로테이션으로 투입하기 위해 지원하였다. 현지에서 관심이 많은 태권도 팀의 경우, 관련된 일꾼들을 찾아내어 선교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왔다. 때로는 비즈니스 전문가를 선교사와 연결하여, 선교사의 사역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시도하기도 하였다.

선교지 안에서 팀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며칠 동안 개별 상담과 상호 협의의 통해 서로의 의견을 중재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3) Ibid, 41-43.

본부와 선교 현장 모두가 팀 사역이라는 스피릿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 4. 미전도 종족에 집중함

본부가 초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집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 사역 지역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을 필리핀의 민다나오, 북인도의 회교권지역, 그리고 아시아의 베트남이나 라오스와 같은 지역들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본부의 미전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표현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미전도지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곳에서도 팀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했다. 또한 각 지역에서도 중앙아시아 사역을 통해 세워졌던 원칙과 경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던 중 중국의 문이 점차 열리면서 중국에도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파송하기 시작했다.

미전도 종족이나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본부에 주된 관심이었기에, 이미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국가는 가급적 배제하려고 하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가급적 그 국가 안에 있는 미전도 지역 또는 미전도종족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민다나오, 북인도 회교권 지역 등이었다.

이러한 미전도 종족이나 지역은 창의적인 접근과 사역이 필요했으므로, 본부는 국내에서 각 지역교회들에게 ‘개교회 종족 입양’을 소개했으며, 미국 남침례교 선교부와 협력하여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 세미나’나 ‘전략 조종가(Strategy Coordinator) 훈련’ 등을 진행해서 선교사들과 선교 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아울러 지역교회에서 선교집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SC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도록 하여, 지역교회의 선교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 5.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두보 같은 나라와 지역을 우선으로 함.

미전도 지역을 선별할 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그런 교두보 같은 지역을 발견하면 그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려고 애썼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그러한 나라였다.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크에, 키르기스는 타지키스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도 역시 힌두권 국가이면서도 무슬림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북인도를 비롯한 회교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사역을 진행하였다. 북아프리카 중에서 튀니지를 주목했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본부가 오랜 기간 선교적 자원을 중국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부는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중요한 자원들이 중국에서 일어날 것을 생각하여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냈다. 이는 하나님께서 중국 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선교의 완성하실 그 날을 기대했던 것이었다.

#### 6. 사역에 있어서 영혼 구원을 우선하며, 그 외 사역은 이후 필요에 따라 진행함<sup>4)</sup>

간혹 선교지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교회 건축이나, 신학교 사역, 그리고 사회봉사 등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운영하기 위해 과도한 지출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사역은 사역의 일차적인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와 현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프로젝트를 진행하되,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음으로써 재정을 규모있게 사용하고 사역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떤 경우, 지역교회나 성도 중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이름을 자신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쓰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다. 이는 당장 어떤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는 봤을 때 재정과 노력이 중복되거나 무의미하게 소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부는 선교 현장에서 외형적인 사역에 치중하거나 선교사가 이런 일들에 필요 이상으로 관계하는 것을 제한했다.

#### 7. 영적 전쟁을 위한 전략적 중보기도<sup>5)</sup>

필자는 국내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는 영적 전쟁이며, 이는 기도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 선교 현장에서 직접적인 사역을 하든, 국내에서 선교 동원과 교육에 관련된 사역을 하든, 모든 종류의 선교 사역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있는

4) Ibid. 47-48. 이 내용은 유병기 회장이 밝히는 ‘선교지의 필요에 맞게 접근하여 점차 본질적인 필요로 전환’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FMB의 핵심 정책은 영혼에 집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지만 현장의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역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다.

5) 김동성. "FMB 중앙아시아 선교전략 사례" Missio Dei Vol.75, 2018, 12, p.11. 내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것임으로, 위해 효과적인 기도 사역을 통해 영적 상황을 분별하고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6)</sup>

그래서 FMB를 중심으로 침례교단 내 전략적인 중보기도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학교를 개설하였고, 전국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부흥과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이 선교사와 선교 사역을 위한 효과적인 선교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중보기도 사역’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 II. 현재 : “현장에서 경험한 사역 대상 종족 사역에 대한 FMB 사역 생각해 보기”

2008년부터 지금까지 M국에 파송된 후, 현장에서 경험한 FMB 파송 선교사로서의 종족 사역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FMB 사역 대상 종족 사역 상황을 나누고자 한다.

### 1. 본부의 전략적인 지역 선정 원칙에 따라 사역지를 재고하다.

필자는 10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교회 선교담당 디렉터로서 사역했고, 새로운 선교단체를 만들어 단독 사역의 경험을 한 후, 새롭게 FMB에 허입 신청을 하고 파송 절차를 밟아 선교지로 파송 받게 되었다. 허입 신청시 개인적으로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캄보디아로 가기로 결정했으나, 선교사 허입은 결정되었지만 파송 선교지에 대한 본부의 의견은 달랐다.

6)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몇가지 있다. 한번은 팀 사역이 깨지는 너무 힘든 관계에 있는 팀의 상황을 접하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 그 팀을 방문했다. 문제가 되는 관계의 핵심 팀원들을 상담하고 해결하려는 며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어떤 노력도 효력이 없어서 그 팀이 분리되는 결과를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런데 항공기가 이륙해서 그 나라를 뜨는 순간 무거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하던 필자에게 새로운 생각이 휘감았다. 그 나라를 벗어나는 그 순간 그 나라, 그 현장, 그 분위기 가운데 벗어나는 듯한 느낌과 아울러 제 마음에 생생하듯 들리는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네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영향력은 이 지역의 독특한 영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이 자리를 벗어나니 그 영향력 가운데 자유로운 너의 느낌과 생각이 있지 않니. 네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너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너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너의 경험과 노력만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니?” 그때 그러한 특별한 경험은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느 지역, 또한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마다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인도하심을 간절히 찾으며 구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 한번은 그 지역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선교사들 총회로 모임을 하던 시간이었다. 그 모임에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었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는데 갑자기 한 선교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우리는 그 선교사 안에 어떤 영적인 기운을 느끼고는, 예상치 않게 그 선교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촉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촉사 과정에서 그 영적 존재는 그 선교사가 그 장소에 오기까지 약 10시간 넘게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들 - 집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발생시켜 오지 못하게 방해했던 자신들을 노력들을 자세하게 표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말하였다. 필자 역시 그 현장에 함께 하며 영적 실체가 탄식하듯 내뿜는 고백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던 동료들 모두는 이 지역과 선교사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관여해서 관계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생각하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실제적 현상과 경험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선교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진행했던 BV(Baptist Vision)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선교의 부흥을 사모하며 진행했던 이 모임에 FMB 중보기도 사역 팀원들이 동원되어 기도할 때, 전원에서 진행 팀을 방해하거나 선교적 자원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공격들을 분별하며 기도하였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한 영적 저항과 영적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캄보디아에는 침례교 선교사들 외에도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신입 선교사가 아닌 필자를 전략적이지 않은 곳에 파송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본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동안의 사역적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런 절차를 통해 회교권 사역 경험을 고려하여, 무슬림 사역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판단했던 M국으로 사역지를 정하였고, 2008년 10월 파송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 2. 종족에 따른 사역 형태와 유형을 달리한다.

현장에서 정착하며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 대상을 회교도인 M족으로 결정하였다. M 종족 사역은 중국계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나, 힌두계 사람들을 위한 사역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적합한 신분을 확보해야 했으므로 필자는 그곳에서 한 기업의 현지 연락사무소 형태로 비자 신청을 했고 그것으로 일정 기간 있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열어 그 사업을 통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희의 신분을 유지하였다.

### 3. 현장에 들어가 현지인들과 섞여 살며 좋은 관계 유지한다.

선교 훈련이나 선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언어를 배우며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지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필자를 포함해 M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는 이러한 정책과 방향으로 인해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필자는 초기 정착을 위해 현지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살며 만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펴기도 결정했다. 거주지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자녀 교육이나 편안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이 아니었다. 이와같이 거의 모든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삶의 현장에 정착하고 있었다.

### 4. 영혼들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한다.

M국에서 사역하는 FMB 선교사들은 거의 모두가 영혼들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영혼들 때문에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며, 그들을 위해서 모든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만나고, 그

들을 위해 계획들을 세우고 그들의 변화와 성장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분기에 한번 전체 FMB 선교사들이 만나서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정기 모임을 할 때 그들의 관심과 나눔, 기도 제목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특징은 우리 FMB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 5.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사역이었다.

정착 후 M국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 필자나 동료 선교사들 모두 선교사 개인의 역량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의존하여 사역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본부는 선교사의 파송과 선교지 선정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지만, 선교사가 일단 파송되면 더 이상 사역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필자는 회교도를 사역 대상으로 결정했기에, M국의 선임 선교사에게 사역에 관한 적절한 안내나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었는데, 현장에서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 선임 선교사의 적절한 안내나 협조가 거의 없었다. 물론 지역 간 거리가 멀고 회교권 사역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다행히, ‘프론티어스 선교회’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초기 정착에 도움을 받게 되면서 큰 문제 없이 현지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단체의 선교사들은 현지어 자료들이나 사역의 매뉴얼 등을 제공하였고, 매주 한 차례 진행되는 선교사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때로는 도움이 될 만한 모임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사역하는 자리에 초청하여 라마단 후 가족 모임에 함께 하도록 하거나 현지인들의 특별한 이벤트에 초청하여 사역의 네트워크를 공유해 줌으로써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힘써 주었습니다. 이때 맺어진 관계는 지금까지도 끈끈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FMB 선교사들의 사역은 아직까지 ‘동역’이라는 개념보다는 각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스스로 헤쳐가는 ‘개척’이라는 느낌이 더 강함을 깨달았다.

#### 6. 각개전투나 전술적인 사역들만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이었다.

M국에서 회교도 사역을 하는 FMB 선교사는 선교사 각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그들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개척’의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존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 고립되어 사역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에만 행사하는 사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각 개인의 한계와 영향력을 넘어서 전략적인 부분이나 M족 전체를 위한 총체적인 사역을 경험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개인의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개척해가야 하는 제약을 경험했다.

당시 필자를 도와주었던 프론티어스나 미국의 IMB는 이미 현지 교단과 협력하기도 하였고, 때론 다른 초교파 연합단체와도 동역하면서 그 나라 전체의 선교적 자원들과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었다. 이들은 선교적 연대를 통해서 전략적 차원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며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사역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다.

#### 7. 전략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연합과 시너지를 발휘하는 협력 사역이 부족했다.

M국의 FMB 선교사 모임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현장에서의 연합이나 모임은 부족했다. 돌이켜보면 같은 민족,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전략적으로 연합하여 사역한다면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적은 숫자의 사역자끼리 함께 모여 무엇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 일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상호 협력과 동역의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자기중심적인 사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동료 선교사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때론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다른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과거와 현재라는 두 시점에서 그동안의 경험들은, 앞으로 FMB의 선교지 선정과 사역의 원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기반으로 옳다고 여긴 것들은, 그 방향과 본질을 그대로 보존하며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따라 미래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과감하게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 III. 미래: 비전에 순종하는 걸음 새로운 10년의 걸음

앞의 과거와 경험과 현재 누리는 축복을 바탕으로 FMB가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 원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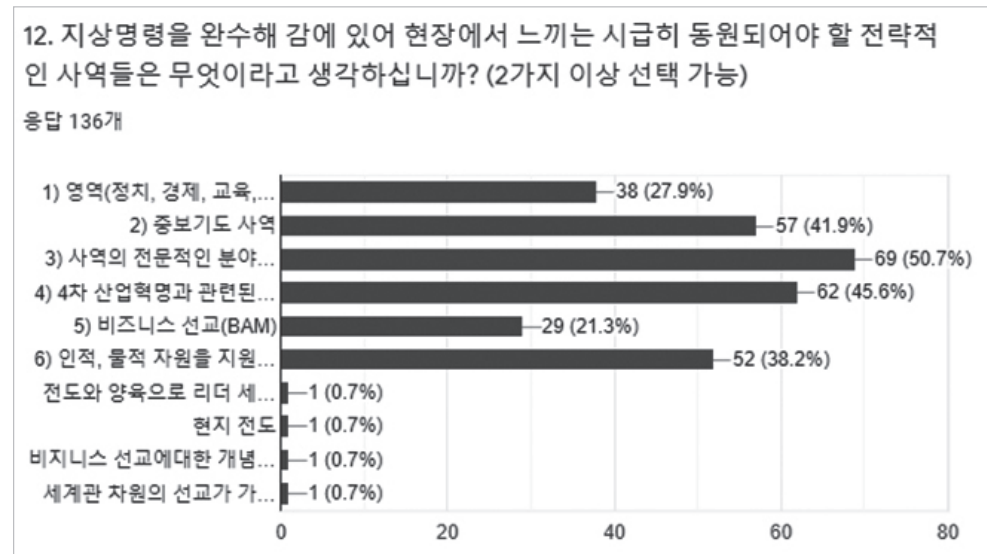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금까지 FMB 사역의 원칙들 가운데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 사역의 원칙

- ① 복음이 핵심이다.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역을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 ② 팀으로 사역하며, 팀 사역의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간다.
- ③ 개인적인 사역을 중요히 생각하며 지원하는 것 만큼, FMB 전체의 큰 그림과 전략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한다.
- ④ 사역지 선택은 개인의 부르심과 소명을 존중하지만, 그 지역의 사역적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선정하고 지원한다.
- ⑤ 다른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 일꾼이 준비된 만큼, 또는 준비하면서 진행하도록 한다.
- ⑥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처럼, 미전도 지역 사역을 지향하고 전략적 교두보를 고려하며 사역한다.
- ⑦ 영적 전쟁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중보기도 사역의 지원체계를 형성하며 사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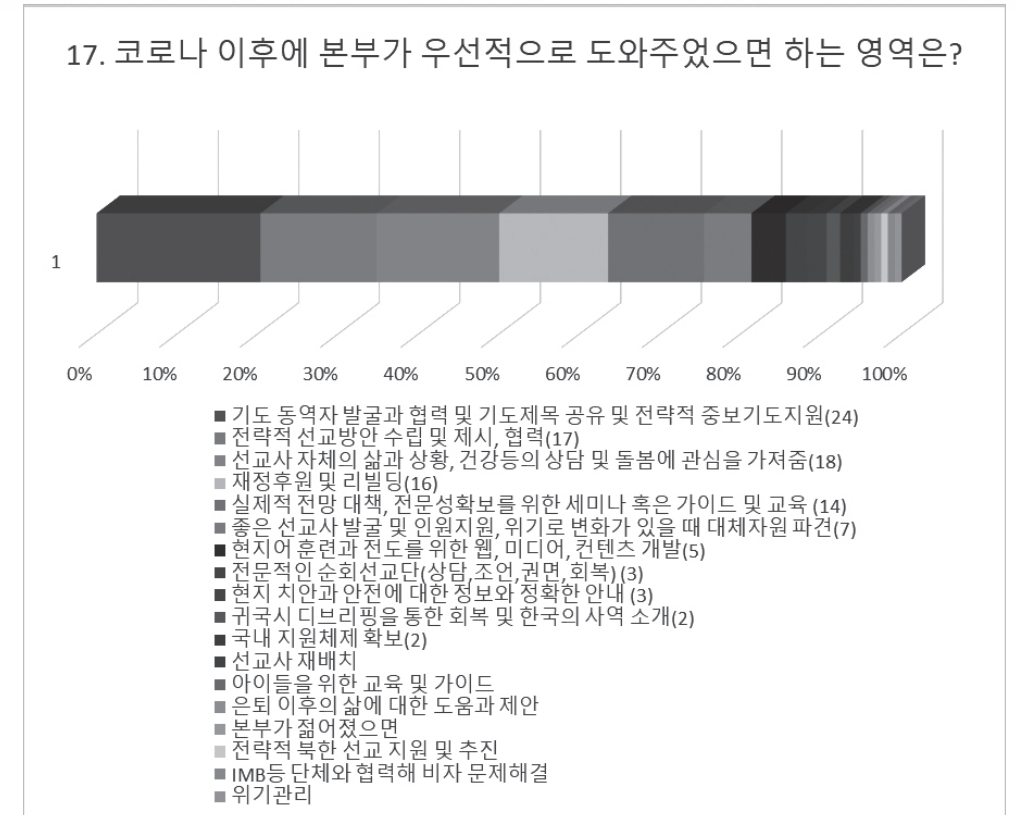
### 2. 앞으로 미래 사역에 있어서 고려하고 새롭게 발전시켜가야 사역의 방향

아래 도표는 비전 2030을 위해 조사한 현지 사역 중 앞으로의 사역에서 있어서 필요한 영역에 대한 요소들을 반영한 것이다.<sup>7)</sup>



7) FMB의 비전 2030을 수립하기 위해 선교사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

이 도표에 의하면, FMB 136명의 선교사들이 사역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사역의 전문성'과 '중보기도 사역'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7가지 사회를 형성하는 영역', '비즈니스 선교'를 합친 것이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선교에 있어서 사역 지도가 바뀌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선교사들의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의 필요한 요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략적 선교방안 수립 및 제시', '실제적 전망대책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교육 및 가이드 제공' 등이 전체 응답의 3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현재 세계적으로 '기도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Upper Room Ministry', '기도의 집 사역', 'One thing Ministry', '다윗의 장막'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기도 사역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역들은 선교와 함께 연합되어 '선교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들이 들려오고 있다. 세계 선교 지도자 모임인 'Billon Soul Harvest Leadership Summit'에서는, 복음주의와 은사

주의를 포함한 개신교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대 추수를 진행하자!”라는 구호 아래 딕 이스트만, 루이스 부시, 황성주 박사, 패트릭 존스톤, 존 랫 등이 리더십으로 모여, 10억의 영혼을 추수하는 사역을 진행하자는 ‘선교 지도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sup>8)</sup> 참여해서 발제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박호중 목사는 “이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경계를 넘어 함께 연합해서 대 추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들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sup>9)</sup> 이와 같은 운동들은 앞으로 일어날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마지막 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연합과 동역’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역의 변화 선교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복음전파, 제자 양육, 교회 개척 및 신학교 사역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역과 함께 7영역에<sup>10)</sup>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평신도와 기타 자원들을 동원해서 동역한다.
- ② 평신도와 다음세대이 선교 현장에 동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사역의 장을 제공한다.
- ③ 남은 미전도 지역과 전략적인 지역을 조사하여 사역에 활용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사역에 필요한 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 ④ 글로벌 시기에 유동인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역을 ‘Mobile화’ 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교 등으로 순발력과 신속성 있는 사역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⑤ 지역 교회 역시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와 더불어 일터교회 혹은 플랫폼 형태의 교회, 인터넷 교회 등 다양화가 요구된다.
- ⑥ 자생하는 선교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각 영역마다 BAM 선교를 DNA로 가지고 있는 선교적 기업을 조직하여 전통적인 사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
- ⑦ 선교 자원을 한국의 침례교단으로 제한하지 말고, 현지 교회와, 해외 침례교 자원들, 그리고 좋은 선교단체나 선교 공동체들과 연합하여 동역하는 사역을 활성화 해야 한다.
- ⑧ 기도로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부흥의 흐름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8) 인터넷 주소: <http://www.billionsoulharvest.net/conference.html> 프로그램 참고, 2021년 10월 3~6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컨퍼런스

9) 인터넷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27G13ocNlus> 참고 박호중 목사의 기도와 선교 강의 내용 참고

10)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사회학과 과학계통의 특정 영역 등’. 출처: <https://educhung.com/2016/11/07/인용>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2월 LA.

## 맺는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한 번도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여리고라는 그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을 ‘소리 없는 행진과 결정적인 선포’로 무너뜨린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지거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사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상담할 때 같은 예화를 반복해서 구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전도-제자양육-교회 개척-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이라는 Core Value는 핵심으로 가지고 선교 사역을 진행하되, 선교 현장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그 이후,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End Time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더 강력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다. 그러기에 Vision 2030을 계획하며 새로운 10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축복과 핵심 원리들을 잘 간직하며 활용하면서도, 효과적인 사역과 풍성한 선교적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 선교는 각개전투인가? 연합작전인가?

| 권오목 선교사(FMB/아르헨티나)



“당신은 왜 혼자 사역 하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 하면 편하고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아내가 사역초기부터 지금까지 내게 종종 하는 말이다.

현대선교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협력 선교”이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과연 협력 선교가 효과적인가? 단기적 효율성만 본다면 반드시 좋은 것이라 말할 자신이 없다. 아내의 말처럼 때론 혼자 하면 더 잘 할 수도 있고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늘 그

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난 지금까지 늘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왔다. 나의 사역도 개인 사역과 협력 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개인 사역

### 1) 교회개척

2년간의 언어 공부 후, 아르헨티나 침



례교 1번지 교회의 지교회를 개척했다. 개척 후에는 늘 현지인 목사와 공동목회를 했다. 현지인 목사와의 공동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 목사들의 불성실함이 교인들에게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몇 번에 걸쳐 현지인 목사들이 떠나갔다. 그 때마다 아내는 내게 “왜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요?”라고 물었다. 결국 교회개척은 동역했던 현지인 목사에게 일임하고 나는 새로운 사역을 찾아 나섰다. 다행히 그 목사가 두 교회를 합하여 목회를 잘해서 지금은 상당히 큰 교회를 이루고 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

## 2) 안디옥 목회자제자훈련

현지인 목사님들을 소그룹(15명 이하)으로 우리집에 초청해 함께 먹고 자면서 제자훈련

을 하였다. 각 그룹은 매달 2박3일 합숙하며 훈련했다. 1년차 훈련의 중심은 귀납법적 성경공부와 강해 설교였다. 매달 성경 중 한 권 선택하여 각자 집에서 공부하고, 훈련에 들어오면 ‘문단 나누기’, ‘요절 찾기’, ‘내용요약’, ‘본문연구와 메시지 요약’ 등 각자 공부해 온 것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몇 달은 직접 설교를 하면서 교정을 받게 하였다. 이와 함께 목회에 필수적인 제자훈련과 소그룹모임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였다. 2년차 훈련의 핵심은 내러티브 성경연구와 이야기 설교였다. 구전문화에 익숙한 남미 사람들에게 이야기 설교가 적합한 설교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을 받는 목회자들은 일정액을 매달 훈련원에 지불하면서 훈련에 임하였다.





### 3) 에스라 성경학교

현지인 목사님들과 오랫동안 성경공부를 함께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



들이 몇 분 생겼다. 그분들과 함께 모바일 성경학교를 개설했다. 한 교회나 한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30명 이상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면, 성경 교사가 가서 성경 한 권을 가르쳤다. 이런 모바일 방식의 성경학교는 다른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쉽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효율적이었다.

목회자제자훈련과 성경학교는 일찍이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나는 전체적인 사역 감독만 하고 있다.

### 2. 협력사역

13년 전, 나는 단독 사역의 한계를 느꼈다. 후임 선교사는 오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나에게서는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다른

이들이게 팔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교포교회 목사에게 내 비전을 나누었고, '내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의 80%는 동일하다.'고 말하며 함께 사역할 것을 제안했다. 그 후 나는 그 교회 협동목사로 가서 그 교회가 할 선교 장기 프로젝트를 세웠고, 그 비전을 현지인 교계지도자들에게 나누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씨 뿌리는 자들"(Red de Sembradores)이라는 목회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세 가지 사역 프로젝트 -아르헨티나 교회 미래 지도자 만들기, 세계선교 인프라 구성하기,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 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조금씩 가시화되어가고 있다.

#### 1) 부에노스아이레스 신학대학원(Facultad de Teología Integral de Buenos Aires)

2021년 2월 신학대학원을 설립했다. 아르헨티나 교회 미래 지도자들을 길러 내기 위한 목표로 우리는 신학대학원을 세웠다. 학장은 미국 고든콘웰신학교 시니어 교수인 아르헨티



나 출신 Pablo Polischuk 박사가, 이사장은 아르헨티나 CCC 대표 Mario Bloise 목사가 맡았다. 교무처장은 교포교회 목사 Pablo Ra가, 공동설립자인 나는 교육목회학 교수로 섬겼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한인 2세 목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섬기고 있다.

#### 2) 씨 뿌리는 자들 선교사 훈련원(Centro de Entrenamiento Misionero Sembradores)

2020년 우리는 첫 선교사 훈련을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에서 온 선



교사 지망생들과 6개월간 함께 합숙하면서 훈련을 했다. 나는 이 훈련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데 미래 선교에 적합한 개성 있는 선교사훈련원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 지금 구상하는 것은 커뮤니티 빌딩의 틀로 선교사 훈련을 하려고 한다. 오전에는 이론 공부, 오후는 각자가 원하는 전문직업훈련을 한다. 바리스타, 미용사, 목공, 자연농업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하고자 한다.



그런 일들을 구상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세계선교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선교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교사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빌딩은 마을의 필요를 파악하여 작은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거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의 일들을 만

들어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로 들어가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 3) 건강한 교회 만들기 운동

향후 10년 후면 라틴아메리카 교회가 세계선교의 바통을 미국과 한국교회로부터 물려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선교운동가들이 중국교회에 기대를 했지만 중국교회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국교회가 세계선교의 한 부분을 잘 담당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라틴아메리카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선교의 후발 주자가 되려면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야 한다. 식물이 입만 무성하다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식물이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하여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말하듯이, 라틴아메리카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가진 비전 중 하나는 신학대원 안에 세계선교센터와 목회선터를 함께 만드는 것이다.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과 더불어 세계선교를 주도해야 할 사명을 맡았기 때문이다. '휘튼 칼리지'나 '무디 신학교'가 세계선교를 주도했던 것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 신학대학원이 세계선교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 결론

뒤돌아보면 나의 사역은 늘 협력 사역이었다. 물론 협력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선교는 말 그대로 '영적 싸움'이었다. 전쟁에는 가끔씩 각개전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전쟁의 부분은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 싸움' 역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만일, 아내의 말처럼 나 홀로 개척교회를 목회했다면 더 잘했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공동목회를 하면서 현지인 사역자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교회는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신학교 역시 혼자 시작했더라면 이미 10년에 시작했을 것이다. 교포교회와 함께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와 상황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신학교는 그럭저럭 잘 되어가고 있지만, 선교사훈련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선교사 지망생은 어떻게 모집하고 훈련한 사람들을 어떻게 파송할지 확실한 보장도 없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펼쳐질 일도 나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모금을 잘 못해서 내 선교비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땅 한 평, 벽돌 한 장도 소유한 것이 없다. 선교센터도 월세로 운영한다. 하지만 협력 사역을 통해 신학대학원도 하고 선교사훈련원도 한다. 최근 누군가 신학교에 건물을 하나 기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교사훈련원 역시 교포교회가 빌려주는 수양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혼자 전쟁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병사를 용감하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결국 그는 적의 포로가 되든지 전장에 쓰러질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아군을 다치게 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현지인들에게 위임했고, '그들은 나 없이도 다 잘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 작정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 김보성 (30기 훈련생)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 23:14)

팬데믹 상황에서 30기 훈련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훈련을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련 일정이 미뤄지고 훈련원 입소 날짜가 거듭 변경되며 먼저 온라인을 통한 강의와 나눔으로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그래서 처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던 날 낯설지 않은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컴퓨터 화면으로 봐왔던 얼굴을 실제로 보며 서로 연예인을 만난 듯 신기해하고 반가워하던 우리의 모습에는 어려움 끝에 성사된 입소의 감격이 더해져 있었다.

40일 동안의 훈련원에서의 생활은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큰 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추억과 경험이 된 듯하다. 나는 훈련을 받으며 그동안의 단기 선교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고 또 내 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강의, 목사님들의 삶을 나누시는 말씀, 선배 선교사님들의 실제적인 사역 등 여러 강사분들을 통해 다양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선교지를 정하고 사역 계획을 세워가기까지 곁에서 계속 조언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것과 개개인 상담해주시며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귀하고 감사했다. 관심과 사랑 속에 전인적인 돌봄을 받으며 치유되고 성장해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더불어 훈련원에서의 공동생활은 서로에게 많은 훈련이 되는 것 같다. 여러



지체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면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나 또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섬김과 교제에 대해 많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가지 많이들 아쉬워했던 점은 선교지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훈련원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깊은 모습들이 드러나기

엔 많이 짧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로 많은 정이 들었고 진짜 한 가족이 된 것만 같아서 너무 빨리 다가온 헤어짐의 시간 앞에 우리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 훈련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은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내 인생의 계획표에도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멈춰있지 않고 배움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좋은 훈련을 준비해주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했던 한 동기의 말처럼 우리 30기 모든 동기들이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다가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 우리는 매일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 박근용 (30기 훈련생)

## 1. 입소 전

우리는 매일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WMTC 30기 훈련은 원래 2월말에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훈련은 8월초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8월 초에 시작 예정이었던 훈련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8월 둘째주로 훈련소 입소가 연기되었지만 그마저 넷째주로 연기되었다가 또 다시 9월첫째주로 연기되어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는 이미 전체 12주 일정의 절반인 6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도 훈련소 근처의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 처음 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점은 8월 입소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수도권과 함께 비수도권에서는 대전만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분히 고의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는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 2. 입소 후

우리는 매일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며 입소 결정과 연기가 반복되며, 온라인 훈련 상황이 훈련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줘서 훈련내용이 정리가



잘 안되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 초반에 다루어져야 할 영역들이 뒤로 밀리거나, 나중에 다루어져야 할 영역들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상황 또한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가보지 않은 선교지의 상황을 미리 겪어보는 것이 아닐까요?

머릿속에 다 넣기 힘들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선교사의 소명부터 위기관리까지 12주간의 훈련 내용들은 제목조차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은 부분은 소명과 관계의 부분입니다.

소명은 특히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소명에 대한 강의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부분은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매일 처음 가는 길을 가는 우리가 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가는 이 길의 중간 중간 뒤를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바로 그 소명을 확인하는 작업이야 말로 우리의 소명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제가 훈련소에서 배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관계 또한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선교훈련원 2층 사무실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교하는 가족 공동체” 처음에는 이 말을 그냥 지나쳤지만 훈련 마지막을 지나는 지금, 선배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공동체 생활은 저로 하여금 어렴풋이 이 뜻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선교사는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파송교회, 파송단체는 물론 선교지에서의 선임, 후임 선교사들과 현지인들까지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만약 이중 어느 하나의 관계라도 틀어진다면 선교사의 사역은 물론이고 선교지에서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역에서도 좋은 관계가 바탕이 되었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매일 말씀보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특히 매일같이 했던 설교자를 위한 QT는 이제 점점 제 삶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습관은 또한 선교지에서 만날 영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지로 나가기 전까지 국내에서 훈련기간에 했던 제



자훈련을 직접 해보며 어쩌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사람 세우는 일에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그밖에 선교 이론과 전략, 상담, 가정문제, 선교 도구, case study 등 이곳에서 배우고 토론했던 모든 시간들은 매일 처음 가는 길을 가는 제게 선교사로서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3. 퇴소 후

우리는 매일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해서 전염병의 위협은 있어왔고, 전쟁과 기근 등의 역사 속에서도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을 처음 마주치고 있기에 마치 안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를 비롯한 WMTC 30기 동기 23명은 훈련이 끝난 지금도 주님이 훈련하시고, 향후 선교를 나가서도 훈련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불편하고, 중단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계속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묻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이러한 상황들이 훈련소 입소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 시키시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통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기다리고, 잘 묻는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알게 되어 선교의 가장 큰 자산을 얻은 것 같아 기쁩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부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이 길을 계속 해서 갈 수 있는 훈련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 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 정미영 (30기 훈련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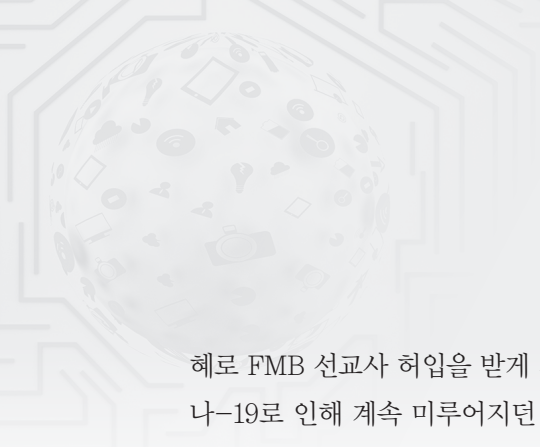
저는 13년 동안 한국교회 부사역자 사모로서 늘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지원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나에게 꼭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지냈던 6년 동안은 저의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모라는 후방사역에 머물렀던 저에게 선교라는 전방사역은,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저의 인생 가운데 ‘선교’라는 또 다른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초기 6년간 선교지에서 있었던 시간들은 저에겐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언어를 배워서 현지 영혼들과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말 그대로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선교지의 영혼들이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러 온 것인지 아니면 받으러 온 것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부터 팀 사역을 시작했는데, 팀원들 모두 열정이 넘쳤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비록 무슬림 지역이었지만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선교지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혹 문제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도 서로 이해하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잘 넘기려고 노력했다. 가족끼리도 항상 ‘이 정도면 괜찮아, 감사해, 훌륭해.’ 하면서만 6년을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은 첫 팀을 마치고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





혜로 FMB 선교사 허입을 받게 되면서 ‘장단기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미루어지던 훈련이 비대면으로 겨우 시작되긴 했지만, 연이은 확진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해 대면훈련 날짜는 점점 뒤로 미루어 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날, FMB 선배 선교사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다시 WMTC에서 훈련받고 싶어요.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훈련 잘 받고, 마음껏 누리다 오세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섬김받을 날이 다시 없을테니 힐링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정작 훈련을 눈앞에 둔 순간,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힐링과 누림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 주님 나의 누림과 힐링은 결국 날아가 버린 것인가요?”

다행히 훈련을 6주 남긴 9월 6일에 입소가 확정되어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훈련이 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0기 모든 동기들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훈련인 만큼 저희는 짧은 시간에 모든 적응을 끝내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한주 한주 동기들은 서로를 향한 엄청난 관심과 사랑으로 빨리 친해졌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훈련원을 진행해 주신 FMB & WMTC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강의는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최고의 강사들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강의는 저의 6년의 선교를 회개하라고 만든 자리였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한국적 선교’를 하고 온 것은 아닐까?’ 특별히 이현모 교수님의 강의는 그동안 선교지에서 한국적인 방식으로 사역을 했던 저의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역의 실제 부분에서 목표나 전략, 그리고 전술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로서 많이 부족하고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진 것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원장님과 사모님의 헌신으로 진행된 Q.T큐티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이 새롭게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모임이 우리 청년들 안에서



도 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이슬람, 독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매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Q.T를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걸음마를 댄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받아본 부부 상담은 저를 많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선교지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던 저로 인해 남편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홀로 그것을 참아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담 교수님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질문하는 남편의 모습은, 결혼한 이후 처음 보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지에서 나 혼자 행복했던 것 같아서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상담 교수님께 배운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이 없었던 남편이 저와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우리 부부가 대화를 해도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남편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저의 문제가 더 컸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훈련원에서 주신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음과 배움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속에서 일하실 주님이 기대되어 빨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빨리 가서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보고 배운대로 사랑해 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에서 5개월간의 기간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안식이었고, 큰 선물을 받는 기회였습니다. 섬겨주신 WMTC 원장님과 부원장님, 스텝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기회를 주신 FMB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에 함께한 30기 우리 동기 여러분들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각자 선교지에 서도 좋은 소식들이 왕래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30기 선교사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 ● 고아라



- 파송국가 : 미정(학교개척지역)
- 파송교회 : 빛의자녀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부르신 땅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예리한 도구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둠에 속해 핍박받는 아이들이 빛의 자녀로 거듭나며, 기독 교사 양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속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 제 삶이 아낌없이 드리지길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 ■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들에 주께서 기뻐하실 빛의자녀학교가 연속적으로 세워지도록
2.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명 감당하도록
3.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4.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5. 모든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길 위하여

## ● 김경태 / 박지현(영진, 보애, 보민)



- 파송국가 : 대만
- 파송교회 : 전주새소망교회

중화권 새로운 땅 대만을 품고 나아가려합니다. 중국대륙을 품고 달려왔던 지난시간들을 거름삼아 계속적으로 중화권이 세계선교로 일어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대륙선교와 함께 다양하게 열린 기회의 땅, 대만을 복음의 파트너로 삼아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힘쓰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게하소서
2. 부르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땅의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예배케하소서
3. 코로나로 막혀있는 출국의 길들이 속히 열려지게 하소서
4.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며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소서
5. 영육간에 늘 강건케하소서

## ● 김도희 / 심주희(노엘)



- 파송국가 : 인도네시아
- 파송교회 : 전주새소망교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사도행전 10:5)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사명에 순종하며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김도희, 심주희, 김노엘 선교사 가정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성령 침례의 역사가 일어났듯, 기도하며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 가정의 발걸음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영혼들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 ■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2. 가정 안에 늘 은혜와 건강과 소통과 평안함이 가득하도록
3.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이 생활화 되도록
4. 성령의 인도함 받는 좋은 만남들을 늘 허락해주시도록



● 김보성



- 파송국가 : 미정(학교개척지역)
- 파송교회 : 빛의자녀교회

“주 여호와와 그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이사야 61:1)

온 열방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학교 개척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장을 열기 원합니다. 특별히 거절당하고 가난하며 교육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초청하여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꿈꾸게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온 대륙마다 주님의 학교가 세워지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길러낼 현지 교사들이 발견되고 양성되게 하소서.

■ 기도제목

1.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함 받도록
2. 거룩하고 성령충만한 주님의 통로 되도록

● 김태진



- 파송국가 : 라오스
- 파송교회 : 빛의자녀교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출애굽기 15:13)

다음세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라오스로 나아갑니다.

그 땅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세대들이 예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예수님만 높이는 교사선교사 되게 하소서
2. 라오스와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3.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과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소서
4.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5.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주소서

● 김태형 / 유채은(유랑, 유하, 유주)



- 파송국가 : 다게스탄(러시아)
- 파송교회 : 목양침례교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마태복음 6:33)

양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산도 쓰지 않는 전사의 민족들이 사는 지역, 다게스탄. 분열과 투쟁의 역사로 웃음을 잃은 그곳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따르는 삶을 권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과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삶을 지속하고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기도제목

1. 모든일에 연합하며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2. 3남 유주가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3. 교회가 하나되고,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 김필성 / 박승희(예빈, 예서, 예담)



- 파송국가 : 터키
- 파송교회 : 마중물교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 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편 84:10)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준비하는 김필성 박승희(예빈, 예서, 예담)가정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는 시간을 지나 드디어 주님 부르신 땅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일에 불려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 기도제목

1. 가정에서부터 예배의 기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2.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고, 언어 공부에 지혜를 주시도록
3. 현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4. 영, 혼, 육의 강건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김한나



- 파송국가 : 마다가스카르
- 파송교회 : 삼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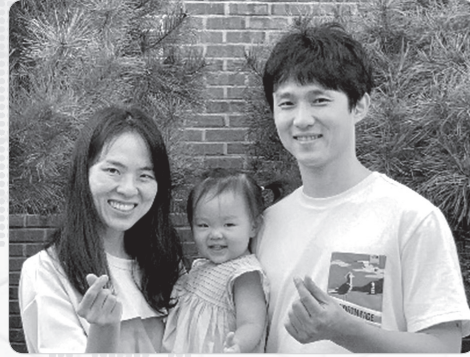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행전 20: 24)

부르심에 순종한 은혜의 땅 마다가스카르!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겨주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셔서 다시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땅의 어린이들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하는 복음의 사역을 꿈꾸며, 증인된 메신저로 성령의 열매로 그 땅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은 자로 세우소서
2.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하소서
3.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소서(언어, 가르치는, 지혜, 사랑)
4.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며, 하나님 영광 볼 수 있기를
5.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주소서

● 박근용 / 한혜정(루아)



- 파송국가 : 다게스탄(러시아)
- 파송교회 : 목양침례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우리는 매일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 기도제목

1.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2. 주님의 사랑으로 다게스탄의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3. 파송교회와의 연합, 팀의 연합을 위해
4. 초기 언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서 잘 습득할 수 있도록
5. 세 식구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 이상지



- 파송국가 : 미정
- 파송교회 : 벨기세텍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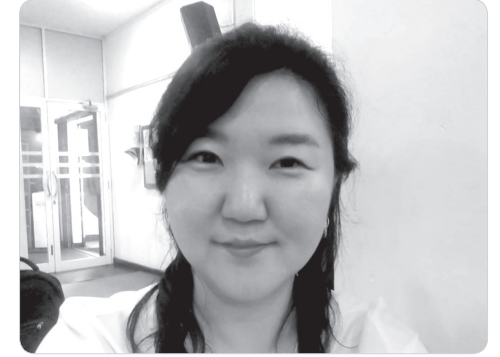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실 곳, 만나게 하실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1. 선교지 :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가족들(아버지, 두 여동생 가정) :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3. 이상지 : 3시간 기도와 말씀 읽기,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4. 구체적인 선교의 길을 위해 돕는 손길과 상황으로 인도하소서

● 이현주



- 파송국가 : 인도
- 파송교회 : 더크로스처치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대학교 2학년때부터 품었던 인도라는 땅에 이제야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인도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시간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 기도제목

1. 더 깊은 차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중보자로 살아가도록
2.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동안 인도에 나아갈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 지기를
3. 인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전한 길을 열어주시기를(비자문제 등)
4. 언어습득(힌디어)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만남의 축복 주시도록



● 장부르심 / 정소명(하민, 한슬)



- 파송국가 : 중앙아시아 T국
- 파송교회 : 거룩한 샘 성전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디모데후서 1:9)

전쟁... 오랜 가난과 슬픔, 고아와 과부가 많은 나라 중앙아시아 T국은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힘차게 일어날 것입니다. 부르심(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제목

1. 선교사 훈련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2. 파미르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 되도록
3. 섬기는 마을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 되도록
4. 세우신 교회의 부흥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 조대욱



- 파송국가 : 국내(캠퍼스사역)
- 파송교회 : 미정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밟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예레미야 1:10)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캠퍼스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기 원합니다

캠퍼스 사역 선교인가?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Z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차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지역적 거리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Z세대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 기도제목

1.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2.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3. 캠퍼스 기도 모임이 잘 개척되도록

● 조 신 / 설다래



- 파송국가 : 터키
- 파송교회 : 성일교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4-15)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은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부름 받아 나아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 둘 공동체를 잃은 그 땅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움으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언어적 지해를 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도록
2. 가족 모두의 건강과 특히 아이들 적응 잘하도록
3. 하나님 손에 맞는 도구 되기 위해 늘 노력하도록
4. 늘 성령충만을 위해 힘쓰는 가정 되도록

● 한민음 / 김사랑



- 파송국가 : 러시아
- 파송교회 : 새누리2교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예레미야 5:1)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 부부가 연합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그 땅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가족이 되고, 함께 울고 웃는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고 지루하지만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그 땅을 ‘씨 뿌리기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끝까지 붙잡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빛 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에 영광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 기도제목

1.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2. 선교지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아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3. 코로나가 종식되어 속히 하늘길이 열리도록
4. 자녀(예인, 요한)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잘 성장하도록



# 사진으로 보는 30기 훈련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MK 이야기







## 감동의 단편 영화제 같은 이야기들

● 김형윤 목사 (세계순회선교사)

FMB 이사로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해 왔고 담임목사 은퇴를 앞두고 3년간 이사장으로 봉사를 했던 나는 은퇴와 동시에 세계순회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며 평소에 늘 꿈꿔 왔던 일인지라 기쁘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던 중, 본부로부터 이 번 훈련을 받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흔쾌히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만 40년을 해 온 나는 평생 선교에 힘쓰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해온 터라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들을 만나는 일이 빈번 했으며 누구보다 선교를 사랑하고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훈련 중인 선교사들에게 강의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선교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해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세계순회선교사가 되어 사역을 하게 되면서 훈련의 필요성도 있던 차에 마침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쁨으로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훈련원을 향해 차를 몰고 내려 오는데 내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훈련에 대한 기대와 말 그대로 내가 업 그레이트 될 수 있다는 바람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훈련을 받은 모든 선교사님들은 하나 같이 너무 훌륭하고 신실하기 그지 없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훈련 기간이 더욱 즐겁고 시간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훈련 첫 주간에 3일 동안 가졌던 디브리핑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깊은 감동을 주는지요. 모두의 이야기는 눈물과 감사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들었습니다.

디브리핑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모두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MUT가 너무도 감사해서 모두 다 받으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모든 강의 시간이 다 너무 좋았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 귀한 강사들을 통해 주신 은혜는, 나에게 MUT는 두고두고 반추하며 기억하게 될 아름답고 행복한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 나를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시간들

● 유미희 (독일)

10년만에 보는 한국의 가을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훈련원의 예쁜 단풍이 우리를 맞이해주었습니다. 2004년과 2006년 단기와 장기훈련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훈련원에 입소했습니다. 먼저 MUT를 받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꼭 받으라고 추천해 주셨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 제게도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18년의 선교경험과 50대 중반인 남편과 50대 초반인 저는 막내 대열에 속했습니다. 강사로 오셔도 될 목사님께서 함께 훈련받는 자리에 계시는 것 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선교사님들과 훈련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Debriefing 시간을 통해 한분 한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아직도 제 안에 치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만 힘들었거나 특별하지 않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겪었던 경험이라는 것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픈 상처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 결별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



어 주는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QT 시간에는 단순히 묵상한 것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하고 3가지 정도의 대지와 적용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평소에 설교를 준비하시던 선교사님들은 짧은 시간 안에 한편의 설교 같은 은혜로운 대지와 적용점을 찾는 것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보는 깊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발달 단계와 가족 생활 주기, 선교사 직무 주기 등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다른 선교사 가정을 바라보는 입체적인 조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정착할 때나 여러 상황을 입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착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어린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저희와 아이들 사이에 있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각종 심리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나 자신과 가정의 문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앞으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과 선교 환경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들과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여 MUT(Missionary Up-Grade Training)라는 제목처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역지와 삶의 여건이 다르지만 각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배 선교사님들과의 개인적인 만남들을 통해 그 성공과 실패 등 경험담을 들으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세계선교훈련원 모든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바를 이루시옵소서

### ● 이마리아 선교사 (카자흐스탄)

오랜만에 한국에서의 6개월 가량의 안식월을 보내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선교사로 살아온 지 2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23년 만에 맞이하는 한국의 가을은 너무 아름답고 근사합니다. 안식월을 나온 김에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인 4주간의 MUT를 받고자 계획하여 참여한 지 일주일입니다. 단지 일주일을 보냈을 뿐인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22분의 베테랑 선교사님들의 영화와 같은 인생 스토리를 들으며 주님의 은혜 속을 여행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주에는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수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스텝들과 동료선교사님들 앞에서 자신의 디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숙제를 하기 위해 모든 분들은 반강제로 자신의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시간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정리하여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 시간의 첫 포문을 연 K 지역 사모님의 디브리핑 시간이 어찌나 솔직 담백 하시며 은혜가 되던지 그 순간 바로 이 디브리핑 시간의 매력에 빠져 저 역시도 열심히 앉아서 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등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소망도 주고 교훈도 주고 감동과 즐거움을 주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 주듯이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한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대전 선교훈련원 안에서 오늘의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베드로, 요한, 바울들 속에서 앉아있고 함께 밥먹고 얘기



하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내 안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까 여전히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남은 훈련이 더욱 기대됩니다. 디브리핑과 함께 다른 강의들도 시작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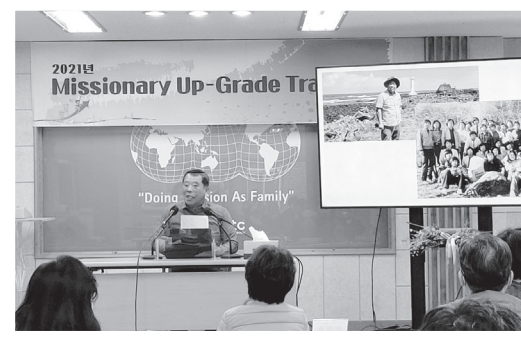
머릿속을 정화시켜주고 새롭게 해주기에 충분한 멋진 강의들이었습니다. 계속 되어질 배움들이 우리 나이드신 훈련생들을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세우시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MUT를 위해 수고하시는 스텝들과 돕고 섬기시는 분들의 수고와 손길들이 일일이 다 보여지지는 않지만 사랑가운데 저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전임 이사장이셨던 김형운 목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루 종일 앉아 훈련생으로 기쁘게 훈련에 참여하시며 여러모로 저희들을 공궤하시며 섬기시는 그 겸손함에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최고참으로 연륜과 경륜을 갖추신 선배 선교사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서 함께 선교사 업그레이드를 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MUT 4주간의 시간 동안 저희를 향해, 그리고 저희를 통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바를 이루시옵소서”



# 사진으로 보는 MUT 훈련이야기





## 2022년 상반기 기관별 사역 일정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 1월 - BCM 부산지역 연합집회(1월 24~26일, 부산침례교회)
- 3월 - FMB 정기 이사회
  - 전반기 수도권 인턴선교사 훈련(문의 : 02-2619-2202 / FMB, 담당 박찬미 선교사)
  - 통일선교학교 4주간, 장소 우리꿈교회
  - 카자흐스탄 선교 30주년 기념 대회, 장소 알마티
- 4월 - 유한침 총회 및 수련회
- 6월 - 장기선교사 시취
  - 북한선교주간 : 통일선교포럼, 북한기도회, 통일콘서트 등의 내용으로 6월 25일 기점 전, 후로 3주간 진행
- 7월 - 선교사 자녀(MK) 캠프
  - BCM 캠퍼스 연합 캠프(7월 11~14일, 침례신학대학교)

###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 1. 주제별 연구

- 1) 선교사 재산 관리와 이양(담당자 : 황권상 박사)
- 2) 선교사의 은퇴 이후의 삶 가이드라인(담당자 : 임태순 박사)
- 3) 한국 장기 거주 사역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담당자 : 문승호 박사)
- 4) 만성적으로 후원금이 부족한 선교사들의 후원금 해결 방안(담당자 : 오선택 박사)
- 5) 선교사 결혼과 배우자 허입 문제(담당자 : 이금주 박사)

#### 2. FMB FLEX 버킷하자 3기

- 1) 성격 : 선교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
- 2) 내용 : FWA BUCKET(성공, 윤리)
- 3) 일정 : 4월 예정

### 세계선교훈련원(WMTC)

2022년 하반기에는 32기 장단기 선교사훈련,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이 각각 진행됩니다. 장단기 선교사훈련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인성, 타문화이해, 사역 기술 등의 훈련을 통해 사역과 삶에 균형을 갖춘 건강한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며,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은 현장 선교사들이 지난 사역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 사회 환경과 선교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특히 2022년 MUT는 사역 경험에 따라 10년 차 이하의 선교사들을 위한 MUT-Pro와 10년 차 이상의 선교사들을 위한 MUT-Senior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 됩니다.

#### ■ 32기 장단기 선교사훈련(신입선교사 훈련, Missionary Pre-field training)

- 훈련기간 : 2022년 3월 ~ 5월(12주)
- 훈련대상 : FMB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타 단체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 훈련내용 : 공동생활, 영성과 인성, 전문상담, 타문화 이해, 선교학, 사역기술, 선교실제 등

#### ■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issionary Up-grade Training)

	MUT- Professional	MUT-Senior
훈련기간	2022년 7월 ~ 8월(5주간)	2022년 10월 ~ 11월(4주간)
훈련대상	사역 10년 차 이하 현직 선교사	사역 10년 차 이하 현직 선교사
훈련내용	공동생활, 디브리핑, 전문상담, 사역점검, 전문 강의 등	

■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 in2mission

## 인투미션 선교학교

###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 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 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n2mission의 단어적 의미**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mission)에 투입(into)되도록 동원하는 선교학교로서,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잠기다. 선교 속으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숫자 '2'는 지역교회와 선교라는 두 개념을 의미하며, 인투미션 선교학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 2. 인투미션 진행안내

-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 선교 교육
  - 기간 : 8~10주(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독서 보고서 등)
- 인투미션 웨비나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선교 이론 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8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인투미션 선교학 개론 :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이론교육(온라인)
  - 기간 : 매주 화요일,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이현모 교수 전담 강의 + 강의 소감문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7주(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
  - 대상 :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강의 + 소그룹 활동

###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 공식 수료증 발부
  - 침례교 해외선교회 "인턴선교사" 자격 부여(6개월 ~ 1년)
  - 침례교 해외선교회 장단기 선교사 시취 시 1순위로 허입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